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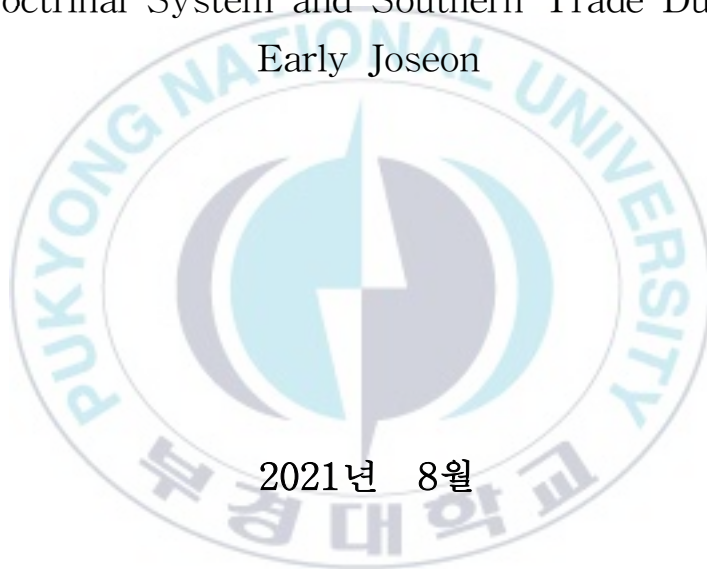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조선 초기 교린체제와 남방무역

The Doctrinal System and Southern Trade During the
Early Joseon



2021년 8월

부경대학교 글로벌정책 대학원

문화학과

김동우

문학석사 학위논문

조선 초기 교린체제와 남방무역

The Doctrinal System and Southern Trade During the
Early Joseon

지도교수 이근우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8월

부경대학교 글로벌정책 대학원

문화학과

김동우

김동우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8월 27일



위원장 문학박사 박원용 (인)

위원 문학박사 신명호 (인)

위원 문학박사 이근우 (인)

<목차>

I. 머리말	1
1. 고려 말 조선 초 동아시아의 형세(形勢)	1
2. 조선의 교린정책과 남방무역	2
3. 연구 목적	5
II. 남방 무역	8
1. 일본(日本)과의 무역	8
1) 대일 무역의 전개	8
2) 왜구와 대일무역	9
3) 왜관(倭館)의 설치와 왜인 통제책(倭人統制策)	12
4) 사무역(私貿易)의 허용과 교역품의 처리 문제	16
2. 유구(琉球)와의 무역	19
1) 대유구 무역의 전개	19
2) 일본을 통한 중계무역과 위사문제(僞使問題)	21
3) 서구열강의 아시아 진출과 유구 중계무역의 쇠퇴	23
3. 동남아시아와의 무역	26
III. 남방 무역품	31
1. 식용 및 약용품	31
1) 후추(胡椒)	31
2) 빈랑(檳榔)	35
3) 정향(丁香)	37
4) 육두구(肉荳蔻)	40
2. 비식용품	43
1) 수우각(水牛角)	43

2) 소목(蘇木), 단목(丹木)	46
3) 명반(明礬), 백반(白礬)	49
4) 서각(犀角)	52
5) 유황(硫黃)	56
6) 상아(象牙)	59

IV. 맺음말	62
---------------	----

참고문헌	66
Abstract	71



<표목차>

<표1>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유구 사신의 내조 (태조~성종)	22
<표2> 조선의 일본·유구 간의 후추 교역	31
<표3> 조선과 일본 간의 빈랑 교역	36
<표4> 조선과 일본 간의 정향과 정향피의 교역	37
<표5> 조선과 일본 간의 육두구 교역	41
<표6> 일본에서 들어온 수우각	44
<표7> 조선과 일본·유구 간의 소목 교역	46
<표8> 세종기 축주부(筑州府) 석성관사(石城管事) 평만경(平滿景) 소목무역	47
<표9> 조선과 일본·유구 간의 명반, 백반 교역	51
<표10> 조선과 일본 간의 서각 교역	52
<표11> 세종시기 일본과의 유향 교역	58
<표12> 조선과 일본·유구 간의 상아 교역	59

<그림목차>

<그림1> 각궁	43
<그림2>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	43
<그림3> 물소뿔로 만든 홍서대	55
<그림4> 서대	55
<그림5> 김종직이 사용했다는 상아홀	60
<그림6> 채제공 금관조복 상아홀과 서대	60

조선 초기 교린체제와 남방무역

김동우

부경대학교 글로벌정책 대학원 문화학과

논문요약

본 연구는 조선 초기 조선의 남방 국가에 대한 외교적 인식과 그 인식을 기초로 한 일본과 유구 및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무역 활동의 전개와 수입품이 조선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당시의 조선 사회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조선 초기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대륙에서는 명이 건국되었고, 일본열도는 혼란의 남북조 시대가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유구열도에서는 세 개로 나뉘어졌던 소국들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었다.

조선의 외교 정책은 사대교린을 기본으로 하였다. 명에 대해서는 사대를 하고 이외의 나라들은 교린을 하는 정책을 택하였다. 하지만 교린에도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는 적례교린과 조선을 우위에 두고 주변 국가를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기미교린의 두 가지 교린체제로 상대를 대하였다.

남방의 국가들의 경우 일본의 막부나 유구의 경우는 적례교린의 대상으로, 일본의 지방 세력들이나 대마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기미교린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무역의 경우에는 그 목적이 동일하지 않다. 일본의 경우는 무역의 목적이 왜구의 근절이 우선이었고, 유구나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교린의 방식으로 먼 곳에서 온 이웃을 후하게 대접하기 위함이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왜구의 침입이었다. 왜구는 고려를 빈번히 침입해 고려 조정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그래서 고려 내부의 중앙집권적인 힘은 약해졌고, 외부의 적을 토벌하는데 공을 세운 신흥 무인세력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흥 무인세력 중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으로 고려의 실질적인 실력자가 되었고, 신흥 사대부와 뜻

을 같이하여 조선을 건국하였다.

조선이 건국되었다고 하여 왜구의 침입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이에 조선 조정은 국방력을 강화하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회유책으로 일본인들에게 무역을 허락하였다. 왜구를 평화로운 통교자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¹⁾

유구는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와의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중계무역을 시작하였다. 명과의 무역에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조선이나 일본과의 무역에는 위험이 뒤따랐다. 조선이나 일본으로 오다가 왜구들에게 재물과 인명을 잃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유구는 조선과 일본 간의 무역에는 사쓰마(薩摩)나 하카타(博多)의 상인들을 통한 무역으로 전환하였다. 때로는 하카타 상인을 유구국 사신으로 삼아 조선으로 보내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일본의 상인들은 실제 유구의 사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신인 것처럼 행사하여 조선과의 유리한 거래를 이끌어 내려 한 경우도 많았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고려 말 공양왕 때 섬라국국 내공(奈工)이, 조선 태조 때 역시 섬라국국 장사도(張思道), 태종 때에 조와국 진언상(陳彦祥)이 내빙하였다. 조선의 경우 그들을 교린의 대상으로 후하게 대접하였으나 조선과의 무역은 지속될 수 없었다. 명나라의 해금정책으로 인해 안정적인 조공무역과 많은 이익으로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은 명나라와의 무역에 집중하였다. 조선과의 무역은 조선으로 가는 뱃길에서 만날 수 있는 왜구의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강행하는 것에 회의적이었을 것이고, 조선 조정 또한 중국이나 일본, 여진에 비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상호 통교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하지 않았다.

조선 초기 남방에서 수입된 50여 가지의 물품 중에 대표적인 10가지를 연구하였는데, 특히 한의학의 약재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 약재 활용에 대해서는 이시진의 『본초강목』과 허준의 『동의보감』을 기본 자료로 이용하였다. 『본초강목』(1596)과 『동의보감』(1610)은 조선 중기에 간행되었지만, 한 의학을 집대성한 저서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약재로 쓰인 경우 이외에도 각각의 수입품들의 특성을 이용하여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사료와 선행연구를 통하여 정리해보았다.

본고에 살펴본 10가지의 수입품을 보면 수우각을 제외하고는 모두 약용으로 이용되었다. 고려 시대와 조선 초기에도 한반도에서 산출되는 약재가 있었고,

1) 한문종 「조선전기 倭人統制策과 통교위반자의 처리」, 『일본사상』 7, 2004, p56.

이에 대한 서적도 간행되었지만, 수입 약재에 대한 인기는 한반도에서 산출된 약재보다 많았다. 수입 약재는 수요가 많은 반면에 공급은 원활하지 못했고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약재를 제때에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시기를 놓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수입 약재에 대한 욕구를 버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밖에 수우각은 조선 국방의 필수인 각궁을 만드는데 필수불가결한 재료였고, 소목은 홍화를 대신하는 염료로서 각광을 받았다. 또한 소목으로 염색할 때 염매제로 사용되는 중요한 물품이 명반, 백반이었다. 유향은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화약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될 물품이었다. 서각이나 상아는 관료의 품계를 구분지을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조선 초기 남방 국가와의 무역에서 수입된 품목은 50여 가지가 넘는다. 이 중에 실제 조선 사회에서 필요한 물건도 있었을 것이고 단순한 사치품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교린의 정책으로 필요하지 않는 물건이라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매우 드물고, 있더라도 매우 간략하게 되어 있어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연구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교역품에 대한 더 폭 넓은 조사를 통하여 조선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 초기 교린체제와 남방무역

I. 머리말

1. 고려 말 조선 초 동아시아의 형세(形勢)

고려(高麗)에서 조선(朝鮮)으로 정권이 교체되던 시기에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도 격변의 시기였다. 중국 대륙의 경우에는 남부에서 발흥한 주원장(朱元璋)이 남경(南京)에서 명(明)나라(1368~1644)를 세우고, 1368년 100여 년간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몽골인의 원(元)나라 수도인 대도(大都-지금의 北京)로 쳐들어갔다. 이에 몽골인들은 대도를 버리고 북으로 이동하여 원나라의 명맥을 유지했다. 이를 북원(北元)이라고 하는데, 비록 세력이 약해졌으나 고려에 대한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고려 내부에는 이러한 상황이 지배층간 친원파(親元派)와 친명파(親明派) 간의 대립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친명파는 신흥 무력세력인 이성계와 힘을 합침으로써 조선을 개국하는 주요 세력으로 힘을 키우게 된다.

일본열도에서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의 초기에 발생한 남북조의 분열은, 1336년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가 교토에서 고묘천황(光明天皇)을 새로 옹립한 다음 겐무시키모쿠(建武式目)를 제정하자, 이에 반발한 고다이고천황(後醍醐天皇)이 요시노(吉野)로 거처를 옮기면서 시작되었다. 일본열도가 남조의 고다이고천황 측과 북조의 막부 측으로 양분되어 전국적인 내란에 휘말리게 되었다.²⁾ 북조와 남조의 대립 형세는 점차 북조의 우세로 기울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규슈의 경우에는 여전히 북조와 남조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남북조 시대는 50여 년이 지난 1392년에 이르러서야 마무리되었다.

유구(琉球)는 14세기 중반에 북산왕(北山王), 중산왕(中山王), 남산왕(南山王)

2) 김보한 「중세 왜구의 경계 침탈로 본 한·일 관계」, 『한일관계사연구』 42, 한일관계사학회, 2012, 8, p15.

으로 불리는 삼산(三山)시대가 전개되었다. 유구의 패권(霸權)을 둘러싸고 각국은 전쟁으로 대립이 격화되었다. 1406년에 작은 아지(安司) 출신인 사소(思紹)가 중산을 공격하여 중산왕(中山王) 무녕(武寧)을 축출하고, 그 세자의 명의를 가지고 거짓으로 명(明)에 책봉을 요청하였다. 사소에 의해 시작된 왕조를 제1상씨(尙氏)왕조라 한다. 사소의 아들 상파지(尙巴志)는 아버지를 도와 우라소에(浦添)에서 슈리(首里)로 왕도(王都)를 옮기고 북산(北山)을 병합하였다. 곧 왕권 강화에 노력하면서 1429년 남산(南山)까지 멸망시켜 비로소 통일된 유구왕국을 성립하였다.³⁾

중국에서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한 해는 고려 공민왕 7년(1368년)이었다. 명은 건국초기부터 주위의 여러 나라들과 조공관계 및 책봉체제를 통하여 우호관계를 수립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고, 그 결과 동아시아 국가 간에는 명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다. 이것을 전제로 피책봉국 간에는 교린(交隣)이라는 새로운 통교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대외적인 조건으로 조선과 일본, 조선과 유구사이에 정식의 교린관계가 이루어졌다.⁴⁾

2. 조선의 교린정책과 남방무역

조선 왕조가 건국 이후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 취하여 온 대외정책의 기본 틀은 사대교린(事大交隣)이었다. 즉 명(明)에 대해서는 사대정책을, 그 이외의 주변에 대해서는 교린정책을 채택하였다.

조선 시대의 세계인식의 기본 틀은 주자학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화이관(華夷觀)이다. 화이관은 고대 중국인의 중화사상(中華思想)에 출발한 것으로 중국 중심적인 세계관이었다. 그들은 문화적 우월의식에 입각하여 한족(漢族)이 살던 지역을 ‘내(內)’, 그 종족 및 문화를 ‘화(華)’로, 주변민족이 살던 지역을 ‘외(外)’, 그 종족 및 문화를 ‘이(夷)’로 구분하였다. 조선은 중화주의적 화이관과 사대공조 체제에서는 ‘이적(夷狄)’으로 분류되지만, 유교문화 면에서는 중국과 대등하거나 버금간다고 자부하면서 스스로 화(華)로 자처하였다. 조선은 스스

3) 최연주 「朝鮮과 琉球의 交流樣相과 고려대장경」, 『일본근대학연구』 45, 2014, p253.

4) 손승철 「朝·琉 交隣體制의 구조와 특성」, 『강원사학』 제13·14 합집, 1998, p202.

로 소중화(小中華)라고 하여 중화인 명(明)과 일체화시키는 한편 주변국가인 일본·여진·유구를 이적으로 간주하였다. 이른바 소중화의식이다.⁵⁾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교린의 최초의 용례는 태조 6년(1397)이다. 도당(都堂-도평의사사)이 오우치 요시히로(大內義弘)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상국(大相國)의 왜구금압 노력을 “진실로 교린하여 화호(和好)를 계속하려는 아름다운 뜻”이라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⁶⁾ 태종 2년(1402) 7월에는 의정부에서 일본국 대장군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滿)에게 보낸 서한에서, “더욱 교린의 신의를 두텁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⁷⁾ 이처럼 조선은 건국과 함께 신의에 기초한 대일 ‘교린(交隣)’ 외교를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은 막부(幕府) 이외의 일본 지방 세력에 대해서는 이를 사대(事大)와 자소(字小-약자에 대한 무휼)로 표현하고 있다. 1441년 조선은 기해동정(己亥東征) 이후 단절된 대마도와의 관계 재개를, “이제 왜인이 간절히 요청하는데 조선으로서는 교린의 자소(字小)하는 의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불허(不許)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여 ‘교린자소지의(交隣字小之義)’로 허용하려 하고 있다.⁸⁾ 조선의 교린이 등류(等類)로서의 이웃과의 관계를 지향했다는 점, 대등 관계가 아닌 상하 관계의 경우엔 ‘사대지례(事大之禮)’와 ‘자소지의(字小之義)’를 교환하는 관계로 설정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⁹⁾

태종대 5품이었던 일본국왕사의 위치(位次)는 세종대에 3품으로 격상되었다. 예조에서 일본국왕사의 경우 여러 섬의 사신과는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이다. 유구의 경우에는 국왕 사신의 경우에는 일본국왕사의 예를 따르고, 상행위를 위한 사신이라면 객인의 예에 따르게 하였다.¹⁰⁾ 유

5) 하우봉 「조선전기 대외관계에 나타난 自己認識과 他者認識」, 『한국사연구 123』, 한국사연구회, 2003, pp249~251.

6) 『태조실록』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2월 25일 계묘 3번째 기사
所諭大相國禁賊之事, 誠交隣繼好之美意也.

7) 『태종실록』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7월 11일 임진 2번째 기사
惟尊執事益惇交隣之信

8) 『세종실록』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1월 21일 갑인 2번째 기사
今倭人請之懇懇, 以我國交隣字小之義, 其不許之可乎.

9) 민덕기 「조선시대 교린의 이념과 국제 사회의 교린」, 『민족문화 21』, 한국고전번역원, 1998, pp30~35.

10) 『세종실록』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9일 경오 3번째 기사

구는 1407년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는데, 일본은 이미 1402년에 책봉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의 예에 따라 동일한 대우를 한 것이다.

조선은 일본이나 유구는 하나의 독립국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일본국왕이나 유구 국왕 사신의 경우와 달리 일본의 지방세력들과 대마도의 경우에는 기미정책(羈縻關係)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기미(羈縻)’란 중국의 전통적인 이적에 대한 통제·회유책으로서 중국에 조공하게 하여 관직을 수여하고 그에 상응한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서, 중국은 이를 통해 천자(天子)로서의 권위와 변방의 안정을 확보하려 한 것이다. 조선도 중국의 이러한 기미의 정책을 일본 지방 세력 및 여진족에게도 적용하고 있었다. 수직(受職)과 도서(圖書) 등을 통해 조공적 내조를 권장하고 내조하면 이를 후대(厚待)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이들을 복종시켜 조선국왕의 권위와 변방의 안정을 도모하려 했다.¹¹⁾ 조선은 대마도의 도주를 비롯한 일본의 지방세력들을 사실상 조공무역의 형식을 빌어서 조선과 교류하게 하였다. 세종은 대마도주와 계해약조를 체결(1443)하여 매년 사송선(使送船)의 수를 정했는데, 이는 중국이 주변국에 대해 조공 횟수와 시기, 선박수를 정한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¹²⁾ 조선 전기 일본 서국의 지방 세력들에게는 기미의 대상으로 대하였으나, 대마도는 달랐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왜구의 근절이 우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대마도를 기미관계로만 대할 수는 없었다. 조선은 기해동정을 통해 대마도를 정벌함으로서 군사적 위엄을 보여 변방을 안정시키려 한 것이다.

동남아시아와의 국가 간의 관계를 보면 명의 책봉을 받은 유구와는 달리 기미의 대상으로 여겼다. 조선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해 “먼 곳에서 온 자를 두텁게 대접한다.”라는 명분에 입각해 일정한 접대를 하는 한편 그 사신들이 서울에 머무는 동안 조선의 관직을 수여하였다. 이와 같은 수직제(受職制)는 본래 오랑캐를 기미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였다. 또한 동남아국가는 명의 책봉체제 속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유구보다는 격이 낮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 국가들을 칭할 때 ‘남만(南蠻)’이나 ‘남번(南蕃)’이라는 용어도

11) 민덕기 「조선시대 교린의 이념과 국제 사회의 교린」, 『민족문화 21』, 한국고전번역원, 1998, p29.

12) 정용화 「조선의 조공체제 인식과 활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7집 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6, pp9~10.

사용하였는데, 조선을 소중화로 간주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이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¹³⁾

3. 연구 목적

조선 초기의 무역은 단순한 교역품의 교환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교린정책에 입각한 주변 국가와의 상호 인정과 변방의 안정에 힘을 기울인 결과였다. 특히 일본과의 무역은 왜구의 근절이 주요한 목적이었고, 유구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은 교린의 대상으로 무역을 통한 상호 인정과 교화를 중요시하였다.

하우봉¹⁴⁾은 조선의 소중화 의식을 통한 조선의 자아인식과 주변 국가들에 타자의식을 설명하였다. 민덕기¹⁵⁾는 일본 막부나 유구가 아닌 일본 지방 세력들에 대하여 기미교린의 대상으로 보고 조선과 대등 관계가 아닌 상하 관계의 경우엔 ‘사대지례(事大之禮)’와 ‘자소지의(字小之義)’를 교환하는 관계로 설정하였다.

일본과 유구와의 수입무역품에 대한 연구는 김병하¹⁶⁾가 광범위하게 분석하였다. 「李朝前期에 있어서 對日南海物産貿易(上)」에서는 소목(蘇木, 丹木)에 관해 다루었는데, 소목의 수요처와 수량에 대해 기술하였다. 「李朝前期에 있어서 對日南海物産貿易(中)」에서는 후추(胡椒)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약재와 조미료로 사용된 후추의 효용에 대한 것이었고, 「李朝前期에 있어서 對日南海物産貿易(下)」에서는 주석(鑛錫)¹⁷⁾을 중심으로 수우각(水牛角), 서각(犀角), 정향(丁香)

13) 하우봉 「조선초기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2012, pp164~165.

14) 하우봉 「조선전기 대외관계에 나타난 自己認識과 他者認識」, 『한국사연구 123』, 한국사연구회, 2003.

15) 민덕기 「조선시대 교린의 이념과 국제 사회의 교린」, 『민족문화 21』, 한국고전번역원, 1998.

16) 김병하 「李朝前期에 있어서 對日南海物産貿易 (상)1965, (중)1966, (하)1967」, 『경제학연구』

17) 鑛은 우리말로 [납]이지만 한자로 기록할 때에는 보통 鑛鐵이라 하였고 이조실록과 같은 우리나라의 사료에는 흔히 납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論者들 등에는 誤譯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銅鐵이 銅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납철을 납과 철이 아니라 납쇠 즉 납이란 금속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金銀이외의 금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정지연¹⁸⁾은 대일 무역의 실태와 폐해 그리고 시기별, 통교자별 통교 현황과 교역 물품을 한약재와 염료, 광산물, 동물, 공예품으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이현아¹⁹⁾는 수우각궁(水牛角弓)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조선 조정의 수우각 확보 노력을 말하고 있다. 왕자²⁰⁾는 근세 동아시아의 후추의 생산과 교역에 대해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있다.

유구와의 교역 연구는 심의섭²¹⁾의 「朝鮮初 對琉球 經濟와 貿易에 관한 研究」에서 조선과 유구의 무역의 일반적인 관계와 표류인 송환, 기술 전수, 교역품의 종류와 수량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손승철²²⁾은 조선과 유구의 관계사(關係史)의 구조와 성격을 연구하였다. 허경진, 조영심²³⁾은 조선과 유구의 관계를 조선 초기 접촉과정과 언어는 달라도 같은 한자문화권으로서 글로써 소통하였다는 것을 말하였다. 이지혜²⁴⁾는 조선 전기(1392년~1638년) 시기를 양국 직접 사신 교류 시기(1392년~1429년) 유구 인식의 형성(形成), 일본 중개 교류 시기(1430년~1526년) 유구 인식의 변화(變化), 중국 중개 교류 시기(1527년~1638년) 유구 인식의 정체(停滯)의 세 시기로 구분해 설명하였다. 최연주²⁵⁾는 고려대장경을 매개로 한 조선과 유구와의 교류를 연구하였고, 진영일²⁶⁾은 조

속의 호칭에 鐵[쇠]字를 붙여서 읽는 습관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철은 참쇠 즉 正鐵 또는 眞鐵이라 칭하였다. 그리고 銑鐵은 특히 水鐵이라 칭하였는데 수철은 [무쇠]의 當字이다. 무쇠의 [무]는 그音が 물 즉 水와 통하기 때문에 수철이라 한 것이다. 납(鐵)은 鉛·亞鉛·錫 등의 軟金屬을 의미하지만 朝·日 무역에서 거래된 鐵은 錫이었다. 김병하 「李朝前期에 있어서 對日南海物産貿易(하)」, 『경제학연구』, p105, 1967.

18) 정지연 「朝鮮前期 對日 私貿易 研究」, 『한일 관계사 연구』 24, 한일관계사학회, 2006, 4. 「조선전기 壹岐 지역의 조선 통교에 현황에 대한 연구」, 『한일 관계사 연구』 57, 한일관계사학회, 2017.

19) 이현아 「조선전기 수우각궁과 수우각 확보 노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19.

20) 왕자 「근세 동아시아 후추 무역」,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20.

21) 심의섭 「朝鮮初 對琉球 經濟와 貿易에 관한 研究」, 『명지대학교 개교 50 주년 기념 제 1 회 충승(오키나와) 국제학술회의 : 조선왕조와 유구왕조의 역사와 문화 재조명』, 1998.

22) 손승철 「朝·琉 交隣體制의 구조와 특징」, 『강원사학』 제13·14 합집, 1998.

23) 허경진, 조영심 「조선인과 류큐(琉球)인의 소통 양상」, 『일어일문학』 54, 대한일어일문학회, 2012, 5.

24) 이지혜 「조선 전기(1392년~1638년) 對유구 관계의 변화와 인식」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13.

25) 최연주 「朝鮮과 琉球의 交流樣相과 고려대장경」, 『일본근대학연구』 45, 2014.

26) 진영일 「조선시대 제주와 오키나와 交流史」, 『인문학연구』 3, 1997.

선의 사대교린(事大交隣) 정책의 입장에서 유구와의 교역을 기술하였다.

조선과 일본의 무역에 대한 연구는 김보한²⁷⁾의 경우 왜구와 관련된 조선과 일본의 외교에 대하여 연구를, 이영²⁸⁾은 조선 초기 일본 정세와 왜구의 관계, 주노중²⁹⁾은 문인(文引)제도를 통한 왜인 통제책(倭人統制策)을, 박평식³⁰⁾은 조선초기의 대외무역정책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한문중³¹⁾은 조선전기에 일본과 교역에 관련하여 대마도와 왜관, 수직인제도 등을, 하우봉³²⁾은 조선전기 대일 무역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조선과 대일·대유구간의 시대 상황에 따른 무역의 특성이나 교역의 의미와 교역품의 종류 그리고 회사품(回賜品)에 대한 일본인과의 갈등 및 조선 정부에 애로점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우선 조선 초기 일본과 무역을 중요시 여기게 되는 시대적 배경과 조선과 유구, 조선과 동남아시아의 무역의 특수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교역에 있어서 조선으로 들어온 물품에 대한 활용 연구를 통하여, 당시 조선 조정이 교린의 상징으로 만의 교역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의 활용 및 필요성을 확인하고 수입된 물품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27) 김보한 「중세 왜구의 경계침탈로 본 한·일 관계」, 『한일관계사연구』 42, 한일관계사학회, 2012, 8, 「고려·조선의 對日本 외교와 왜구-13~15세기 금구(禁寇)외교와 그 성과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7, 한일관계사학회, 2014, 4.

28) 이영 「경인년(1350)~병신년(1356)의 왜구와 규슈 정세」, 『한국중세사연구』 26, 2009, 「고려 말, 조선 전기의 왜구와 대마도」, 『한국해양사연구총서3 - 부산과 대마도의 2천년」, 부경대 대마도 연구센터, 국학자료원, 2010.

29) 주노중 「조선의 문인(文引) 제도를 통한 대마도 통치사 고찰」, 『유라시아연구』 제15권 제1호, (사)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8, 3.

30) 박평식 「朝鮮初期의 對外貿易政策」, 『한국사연구』 125, 2004, 「조선전기 상업사의 이해시각」, 『역사교육』 155, 역사교육연구회, 2020, 9.

31) 한문중 「朝鮮前期 對馬島の 通交와 對日政策」, 『한일관계사연구』 3, 1995, 5, 「조선전기 한일관계와 1407년의 의미」, 『지역과 역사』 22, 2008, 「조선전기 왜관의 설치와 기능」, 『인문과학연구』 3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3, 「조선전기 倭人統制策과 통교위반자의 처리」, 『일본사상』 7, 2004, 「朝鮮前期의 受圖書倭人」, 『한일관계사연구』 5, 한일관계사학회, 1996, 5.

32) 하우봉 「조선 전기 부산과 대마도의 관계」, 『역사와 경계』 74, 부산경남사학회, 2010, 3.

II. 남방 무역

1. 일본(日本)과의 무역

1) 대일 무역의 전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창업하는 배경에는 왜구의 역할이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고려 말 경인년(庚寅年, 1350) 이후 창궐한 왜구의 침략으로 주군(州郡)이 텅 비어 살 곳을 잃고 고을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다.³³⁾ 특히 해안가의 백성들은 왜구의 침탈이 미치지 못하는 내륙으로 피난을 가게 되고 농경지는 돌보지 못해 황폐화 될 수밖에 없었다. 고려의 조세 창고와 조운선은 왜구 약탈³⁴⁾의 주요 대상이었고, 이는 고려 조정의 재정에 크나큰 타격을 주었다. 또한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계기로 힘을 키워나간 무장 세력 중 동북면의 이성계는 크고 작은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훗날 조선 창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도 왜구의 침입은 계속되었고, 고려의 멸망이 왜구와의 관련성이 적지 않음을 알고 있는 조선 조정에서는 왜구 대책에 힘을 기울였다. 왜구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각 해안의 방비를 강화하고 수군을 증강하였다.³⁵⁾ 한편으로는 왜구를 막고 피로인(被擄人)의 송환을 도와주는 일본의 세력들에게는 사례를 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기를 요청하였고,³⁶⁾

33) 『고려사절요』 권35, 공양왕 3년 3월

自庚寅倭寇以來，州郡蕩然失所，邑無孑遺

34) 『고려사』 권319, 공민왕 7년,

壬戌 倭侵黔毛浦，焚全羅道漕船。時倭寇爲梗，漕運不通，以漢人張仁甫等六人爲都綱，各授唐船一艘·戰卒百五十人，漕全羅稅租，賊乘風縱火，焚之，我師敗績，死傷甚多

35)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5월 경오 3번째 기사

各道上軍籍。先是，遣南閭、朴葳、陳乙瑞等八節制使，以備倭寇。寇退，乃命南閭于慶尙道，朴葳于楊廣道，陳乙瑞于全羅道，點軍成籍，其餘諸道，令按廉使點之。至是，成籍以上。京畿左右、楊廣、慶尙、全羅、西海、交州、江陵凡八道馬步兵及騎船軍總二十萬八百餘人，子弟及鄉驛吏諸有役者十萬五百餘人。

36)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0월 정축 2번째 기사

茲者，被擄人七百名，俱蒙發遣，獲還鄉里，爲惠已極。且云：“未得還者，漸聚送之。

왜구 방어에 공이 크거나 항복한 왜인들에게는 조선의 관직을 하사하였다.³⁷⁾ 또한 경제적 목적의 큰 왜구들은 교역을 유도해 평화적인 통교자(通交者)로 회유하였다.

일본과의 교역의 대상은 막부와의 일원적인 것이 아니라, 대마도(對馬島)와 일기도(壹岐島), 규슈(九州)의 세력 등 다원적으로 이루어졌다. 왜구의 근거지인 규슈와 여러 섬들이 교역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일본과의 무역이 단순히 무역 이익이나 조선 내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왜구의 발흥을 억압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왜인 통제책(統制策)으로는 문인(文引)제도가 있었다. 태조와 태종은 예조에서 관장하는 여행증서인 도서(圖書)를 두었다. 세종은 도서와 행장(行狀)에 인장을 찍는 일본의 여러 섬 실력자들에게 동부(銅符)를 주었다. 이는 동부인장(銅符印章) 문인제도로 발전하면서, 이후에 왜인 통제책으로 사용하였다.³⁸⁾

조선의 입장에서는 일본 막부와는 교린의 대상이었으나 지방 세력들이나 대마도의 경우에는 기미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무엇보다도 왜구의 근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조선은 일본과의 협상은 왜구의 발흥을 실질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일본 서국의 여러 실력자들과 다원적으로 실시하였다. 하지만 교역의 방식은 기미의 대상이라는 인식하에서 진행하였다. 즉 조선 내에서 기본적으로 조공 형식의 공무역의 형태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불경 등의 청구를 들어주는 모습으로 변방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2) 왜구와 대일무역

고려 말 왜구들이 한반도에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침구(侵寇)했는가에 대해서 『고려사』에서는 “2월 왜구(倭寇)가 고성(固城)·죽림(竹林)·거제(巨濟)를 노략질하자 합포천호(合浦千戶) 최선(崔禪)과 도령(都領) 양관(梁琯) 등이 전투를 벌

” 又欲禁賊，期於兩國永無間隙，通好之誠，至爲深篤，喜感何涯。

37)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2월 병오 2번째 기사

降倭 灰六宣略將軍龍驤巡衛司行司直兼海道管軍民萬戶，非灰時知敦勇校尉龍驤巡衛司左領行司正兼管軍百戶。賜灰六銀帶一、腰紗帽一、靴一。

38) 주노중 「조선의 문인(文引) 제도를 통한 대마도 통치사 고찰」, 『유라시아연구』 제 15권 제1호, (사)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8, p6

여 격파하고 적 300여 급(級)을 죽였다. 왜구의 침략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³⁹⁾라고 되어있고, 또 안정복 『동사강목(東史綱目)』에 따르면 “충정왕 2년(1350 경인년) 2월 왜는 원이 정동(征東)⁴⁰⁾한 뒤부터 우리나라에 그 분풀이를 하려고 하였으나 원을 두려워하여 감히 발동을 못하다가 이때에 와서 원의 국세가 쇠약해지자 비로소 고성·거제(巨濟) 등지에 와서 노략질하였다. 천호(千戶) 최선(崔禪) 등이 싸워 깨뜨리고 3백여 급(級)을 참획(斬獲)하였는데, 왜구(倭寇)의 침입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⁴¹⁾ 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 말의 왜구(倭寇)는 고려 조정에서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였다. 왜구의 침입은 고려 조정의 재정(財政)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해안가의 창고를 왜구의 침탈로부터 안전한 내륙으로 옮겼고, 조운선의 약탈로 인한 문제로 조세의 운반을 육로로 변경하도록 하였다.⁴²⁾

당시 일본은 남북조 대립의 시기였다. 정세는 북조의 우세로 기울어져 갔지만 규슈의 상황은 달랐다. 북조의 쇼군(將軍)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의 동생이었던 아시카가 다다요시(足利直義)와 아시카가 다카우지의 집사(執事) 고노 모로나오(高師直)는 집권의 방식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모로나오는 쇼군 중심적 집권체제를 원했으나, 다다요시는 천황을 존중하고 법에 의한 정치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다다요시는 모로나오와의 권력 투쟁에서 패배하게 되어 출가(出家)하게 되고, 다카우지의 서자(庶子)이자 다다요시의 양자였던 아시카가 다다후유(足利直冬)는 모로나오에 의해 쫓겨 규슈로 들어가 모로나오 세력에 대항해 싸우게 된다.⁴³⁾ 규슈에 세력을 모으던 다다후유는 북상을 결정

39) 『고려사』 세가 권37 충정왕 2년 2월

二月 倭寇固城·竹林·巨濟，合浦千戶崔禪，都領梁瓘等，戰破之，斬獲三百餘級，倭寇之侵，始此.

40) 제 1차 원정 1274년 10월 3일(음) 을사(乙巳) 『고려사』 세가 권28, 충렬왕 즉위년 10월

제 2차 원정 1281년 5월 4일(음) 무술(戊戌) 『고려사』 세가 권29, 충렬왕 7년 5월

41) 안정복 『동사강목(東史綱目)』 14上, 충정왕 2년 2월 《한국고전종합DB》

42) 『고려사』 세가 권39 공민왕 7년 4월

丁酉 倭寇韓州，及鎮城倉。全羅道鎮邊使高用賢，請徙沿海倉廩於內地，從之.

『고려사』 권80 식화3

近因倭寇，漕運不通，遠近輸轉，皆由陸路.

43) 이영 「경인년(1350)~병신년(1356)의 왜구와 규슈 정세」, 『한국중세사연구』 26, 2007, pp155~156.

하고, 대규모의 병력으로 1350년 2월에 다자이후(大宰府)와 하카타(博多)에 공격을 시작한다.

당시 하카타 일대를 지배하고 있던 쇼니요리히사(少貳頼尙)는 위협을 느꼈다. 요리히사가 해결해야 할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병량미 확보였다. 요리히사의 영지는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급박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고려를 침구해서 약탈하는 것이었다.⁴⁴⁾

고려 조정은 왜구의 금지를 위해 8차례에 걸쳐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지만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적극적인 방어대책에 노력하였다.⁴⁵⁾ 우왕 2년의 최영(崔瑩)의 홍산대첩(鴻山大捷), 우왕 6년의 나세(羅世), 심덕부(沈德符), 최무선(崔茂宣) 등의 진포대첩(鎭浦大捷), 우왕 6년 이성계의 황산대첩(荒山大捷)이 그것이다. 창왕 1년에는 경상도원수(慶尙道元帥) 박위(朴葦)가 전함 100척으로 대마도를 공격하여 왜선(倭船) 300척과 해변의 집들을 대부분 불태우고 포로로 잡혀갔던 남녀 100여 인을 찾아 돌아왔지만⁴⁶⁾ 왜구의 침탈을 근절하기에는 무리였다.

고려를 이어 받은 조선은 왜구에 대해 정치·경제·군사적인 측면으로 대응하였다. 첫째는 해안방어(海岸防禦)의 강화(強化)이다. 수군(水軍)을 정비하고 병선(兵船)을 개량하였으며, 해안가에 성을 쌓고 봉수대(烽燧臺)를 설치하여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둘째는 외교적 노력으로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의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満)에게 왜구 금지를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왜구의 영향력을 가진 일본 서국의 세력들에게 대해서도 왜구 진압을 요구하였다. 셋째는 회유책(懷柔策)으로 태조는 왜구 진압과 피로인 송환에 도움을 준 세력들에게는 통교시의 혜택을 주고, 수직제도(受職制度)라 하여 조선의 관직을 하사하기도 하였다.⁴⁷⁾ 이외에도 피로인 송환에 적극적인 공로자나 항복한 일본인(降倭)중에서 왜구의 수령이나 왜구진압에 공로가 있는 자, 기술을 가진 자들에게 관직을 주어 우대하고, 왜구 중에서 투화한 자들에게 토지와 재물, 집

44) 이영 「고려 말, 조선 전기의 왜구와 대마도」, 『한국해양사연구총서3 - 부산과 대마도의 2천년』, 부경대 대마도 연구센터, 국학자료원, 2010, pp108~109.

45) 하우봉 「조선 전기의 부산과 대마도」, 『한국해양사연구총서3 - 부산과 대마도의 2천년』, 부경대 대마도 연구센터, 국학자료원, 2010, p139.

46) 『고려사』 권116 열전 권29 제신 박위전

47) 『태조실록』 태조 5년 12월 9일 계사 1번째 기사

을 주고 조선에 살도록 하였는데 이들을 향화왜(向化倭) 혹은 투화왜(投化倭), 향왜(降倭)라 불렀다. 태종 9년에는 경상도에 사는 향화왜인이 2천명에 달했다.⁴⁸⁾

3) 왜관(倭館)의 설치와 왜인 통제책(倭人統制策)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에 의하면 “대마도(對馬島)에 군(郡)은 8개이다. 민가는 모두 해변 포구를 따라 살고 있는데, 모두 82포(浦)이다. 남에서 북은 사흘길이고, 동에서 서는 하룻길, 혹 한나절 길도 된다. 사방이 모두 돌산[石山]이라 토지가 메마르고 백성들이 가난하여 소금을 굽고 고기를 잡아 팔아서 생활한다. 도주의 목장은 4개소인데, 말이 2천여 필이나 되고, 등허리가 굽은 말이 많다. 생산품은 감귤(柑橘)과 목저(木楮-닥나무)뿐이다.”⁴⁹⁾

안정복 『동사강목(東史綱目)』에 의하면 “대마도(對馬島)는 종씨(宗氏)가 대대로 도주(島主)가 되어 왔다. 섬은 해동(海東) 여러 섬의 요충에 위치해 있다. 본국에서 이전부터 금주(金州 김해)에다 호시(互市)를 허가하여 때로 들어와 조공을 바쳤는데 동정(東征) 이후로 수신사(修信使)가 서로 끊어졌다. 그러다가 이때에 다시 조알해 왔다.”⁵⁰⁾ 라고 기록되어 있다. 『해동제국기』와 『동사강목』의 기록으로 보아 대마도는 척박한 환경으로 대마도인들이 가난하여 예부터 김해지방에 와서 교역으로 하였고, 여몽연합(麗蒙聯合)의 일본 원정(遠征)⁵¹⁾ 이후 끊어졌던 통교가 공민왕 17년에 이르러서야 재개되었다는 것과 때로는 조공(朝貢)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이 개국한 이후에도 왜구에 대한 문제는 조선 조정의 중대한 현안(懸案)이었다. 조선은 고려 후기 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신 왕래가 많았다. 조선은 개국과 동시에 조선과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 조선과 다자이후(大宰府), 조선과 대마도(對馬島), 조선과 수호(守護)세력 등과 수시로 사신을 교환

48) 하우봉 「조선 전기의 부산과 대마도」 『한국해양사연구총서3 - 부산과 대마도의 2천년, 부경대 대마도 연구센터』, 국학자료원, 2010, p139.

49) 신숙주 『해동제국기』 「일본국기(日本國紀) - 대마도」 《한국고전종합DB》

50) 안정복 『동사강목(東史綱目)』 15上, 공민왕 17년 7월 《한국고전종합DB》

51) 제 1차 원정 1274년 10월 3일(음) 을사(乙巳) 『고려사』 세가 권28, 충렬왕 즉위년 10월

제 2차 원정 1281년 5월 4일(음) 무술(戊戌) 『고려사』 세가 권29, 충렬왕 7년 5월

하며 다원적인 왜구금지 외교를 시도하였다.⁵²⁾ 조선은 교린(交隣)의 질서를 바탕으로 왜인들의 경제적인 요구와 필요를 교역을 통하여 충족시켜 줌으로써 왜구의 침입을 막고자 하였다. 왜구의 본거지이던 대마도의 신속(臣屬)을 허용하여 세사미(歲賜米)를 지급하고, 일본 내 각 토호나 영주들의 조공을 받아들이면서 교역의 형태로 식량과 의료물(衣料物)을 공급하여 그들의 경제적인 요구를 만족시켜 주려 하였다.⁵³⁾ 하지만 태종 7년 경상도 병마도절제사(慶尙道兵馬都節制使) 강사덕(姜思德)이 올린 왜적(倭賊) 방비책에 따르면 “대마도 왜인 여미다라(餘彌多羅)·비고시라(非古時羅)가 와서 말하기를 ‘그 섬의 왜적들이 공모하기를, 조선에 가서 장사하여도 욕망에 차지 않으니, 우리 배를 수리하여 가지고 변방을 침략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다.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많지 않은 병선이 정박(碇泊)한 경우에 불우(不虞)의 틈을 타서 갑자기 이르면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요해처(要害處)인 각포(各浦)에 병선을 모아 그 변(變)에 대비하도록 하소서.”라 하여 조선 초기의 통교 허용은 왜구의 근절에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다.⁵⁴⁾

그리고 세종 1년(1419) 5월에 충청도(忠淸道) 비인현(庇仁縣) 도두음곶(都豆音串)에 왜선 50여 척이 침범한 사건이 있었다.⁵⁵⁾ 당시 세종에게 임금의 자리를 선위(禪位)하였으나 병권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상왕 태종은 신하들과 대마도 정벌에 대해 논의하고⁵⁶⁾ 같은 해 6월 19일 대마도로 나아갔다.⁵⁷⁾ 삼군도체찰사(三軍都體察使) 이종무(李從茂)가 이끌던 대마도 정벌군은 대마도 두지포(豆知浦)에 정박해 크고 작은 적선 1백 29척을 빼앗아, 그중에 사용할 만한 것으로 20척을 고르고, 나머지는 모두 불살라 버렸다. 또 도적의 가옥 1천 9백 39호를 불 질렀으며, 전후에 머리 벤 것이 1백 14이요, 사로잡은 사람이 21명이었다.⁵⁸⁾ 이에 놀란 대마도 도주 종정성(宗貞盛)이 화친을 요청하였기에

52) 김보한 「고려·조선의 對일본 외교와 왜구 - 13~15세기 금구(禁寇)외교와 그 성과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7, 한일관계사학회, 2014, p23.

53) 박평식 「朝鮮初期의 對外貿易政策」, 『한국사연구』 125, 2002, p92.

54) 『태종실록』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8월 11일 임진 5번째 기사

55) 『세종실록』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5월 7일 신해 1번째 기사

56) 『세종실록』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5월 14일 무오 4번째 기사

57) 『세종실록』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6월 19일 임진 7번째 기사

58) 『세종실록』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6월 20일 계사 4번째 기사

이종무는 이를 받아들이고 7월 3일 거제도로 돌아왔다.⁵⁹⁾ 이와 같은 이종무의 기해동정(己亥東征)은 조선 초기 왜구의 근거지를 토벌하여 그동안의 왜구의 만행을 엄중히 문책하기 위한 군사적 정벌이었다.⁶⁰⁾

세종 1년 대마도 정벌에 대해 당시 조선의 대외목표는 영토의 확장과 여진에 대한 영향력 확대였기 때문에 대마도 원정군이 왜구의 주축 세력과의 전면전이 아니라, 조선의 위력을 보이는 동시에 왜구의 활동을 위축시켜 남방의 국경을 공고히 하는 한편 남방에 소비될 국방력을 북방 지역으로 기울일 수 있는 때를 준비하기 위한 원정으로 보기도 한다.⁶¹⁾ 이 같은 조선 조정의 왜구 대책과 대마도정벌로 인하여 왜구의 침입은 감소한 반면 왜인의 통교는 증가하였다.

대마도정벌 이전에도 왜인들이 무역할 수 있는 곳에 대해 제한을 두었는데, 이는 태종 7년 흥리왜선(興利倭船)이 경상도에 일시에 수 십 척이 이르러, 무역하는 사람이 없어 유련(留連)하고, 혹은 강제로 민호(民戶)에 들어가서 강제로 매매하는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다.⁶²⁾ 이에 조선 조정은 부산포(富山浦)와 내이포(乃而浦)에 흥리왜인(興利倭人)이 조선에 있는 동안에 머물 수 있는 포소(浦所) 제한을 두었고, 제도(諸島)의 거수(渠首)에게 두루 알리고 행장(行狀)⁶³⁾을 발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⁶⁴⁾ 서울에서는 일본사신을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태종의 선위(禪位) 문제로 소란을 일으켜 귀양을 보낸 민무구(閔無咎)와 민무질(閔無疾)의 집을 헐어서 그 재목과 기와로 동평관(東平館)과 서평관(西平館)을 짓도록 하였다.⁶⁵⁾ 이는 조선에 도향한 왜인은 반드시 서울에 상

59) 『세종실록』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7월 3일 병오 2번째 기사

60) 김보한 「고려·조선의 對일본 외교와 왜구 - 13~15세기 금구(禁寇)외교와 그 성과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7, 한일관계사학회, 2014, p26.

61) 이규철 「1419년 대마도 정벌의 의도와 성과」, 한국해양사연구총서4 - 전란기의 대마도, 부경대 대마도 연구센터, 국학자료원, 2013, pp93~95.

62)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27일 무인 3번째 기사

興利倭船，連續出來，至慶尙道，一時或至數十隻；以無貿易者，動輒留連，或散入民戶，抑賣驚擾.

63) 외국 사람의 신분을 보장하고, 통행(通行)에 편이를 주기 위하여 발행하던 일종의 여행증명서. 여기서는 도서(圖書)를 받은 일본의 여러 섬 추장(酋長)들이 발급하던 문인(文引)을 말한다. 《한국사 DB, 조선왕조실록》

64)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27일 무인 2번째 기사

65)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2월 26일 기해 1번째 기사

경해 조선왕을 알현하여 진상숙배하고 회사품(回賜品)을 하사받는 조공무역을 행하고, 그 후에야 물품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왜인들이 서울에서 머무를 곳이 필요했던 것이다.⁶⁶⁾

포소왜관(浦所倭館)의 경우는 태종 7년에 부산포(富山浦)와 내이포(乃而浦)에 이어 태종 18년(1418년) 경상좌도(慶尙左道) 염포(鹽浦)와 경상우도(慶尙右道) 가배량(加背梁)에다 각각 왜관을 설치하였다.⁶⁷⁾ 왜구의 근절과 바다에 대한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왜인들을 제한된 곳에 집중시키는 것이었다. 제한된 곳에 집중시킬수록 왜인들을 통제하기 쉽기 때문이다.⁶⁸⁾ 이는 늘어나는 왜인들이 때를 지어 도둑질 하거나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듬해 대마도정벌로 인하여 포소왜관들이 폐쇄되었다가 세종 5년(1423) 부산포와 내이포를 다시 개항하였다. 세종 8년(1426)에는 대마도의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郎)이 삼미삼보라(三未三甫羅)를 보내어 거제도(巨濟島)에 농사를 지을 토지와 내이포와 부산포 이외에 좌우도(左右道)에도 포소를 두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였다. 이에 조선 조정은 거제도는 거주민이 모두 토지를 개간했기 때문에 거절하고 기존의 내이포와 부산포 외에 울산(蔚山)의 염포에서만 개항해 무역을 하도록 허가하였다.⁶⁹⁾

포소의 제한 이외에도 왜인 통제책으로는 서계(書契)·수도서제(授圖書制)·행장(行狀)·노인(路引)·문인(文引) 등이 있다. 서계는 조선의 예조와 일본의 통교자가 주고받았던 일종의 외교문서이다. 통교왜인은 반드시 서계를 지참해야 하고, 서계에는 통교자의 관직 및 성명, 도항인원, 도항목적 등과 조선국왕에 진상하는 물품을 기록한 별폭 그리고 도서가 찍혀있어야 했다. 수도서제는 조선국왕이 일본의 지방세력이나 통교상의 공로자에게 내리는 일종의 사인(私印)인 도서(圖書)를 지급하는 제도로, 통교자가 내조할 때에 가지고 오는 서계에 찍어 통교상의 증명으로 삼았다. 도서를 사급받은 자를 수도서인(受圖書人)

66) 한문종 「조선전기 왜관의 설치와 기능」, 『인문과학연구』 32, 2012, 3, p253.

67)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2일 임자 2번째 기사

68) 신명호 「조선초기 해양개척과 어장개방」, 『한국해양사연구총서1 - 조선전기 해양개척과 대마도, 부경대 해양문화연구소』, 국학자료원, 2007, p19.

69) 『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4월 16일 병인 8번째 기사

『세종실록』 31권, 세종 8년 1월 18일 계축 3번째 기사

在前來泊乃而、富山兩浦外，蔚山、鹽浦，亦許販賣。

이라 하는데, 이들은 조선에 도항할 수 있는 통교권을 인정받았다.⁷⁰⁾ 행장은 도항왜인의 신분과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의 세력이 발급한 것으로 일종의 신분증명서이다.

노인과 문인제도는 도항증명서로 홍리왜인 및 사송왜인에 대한 통제방식이다. 문인제도는 세종 8년(1426) 대마도주 종정성(宗貞盛)의 요청에 의해서 검토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세종 20년(1438) 대마도주와 문인제도를 정약하면서부터였다.⁷¹⁾ 도서와 서계는 대마도주의 정치적 불안정과 구주 절도사의 지배력 약화, 그리고 제도의 미비로 인한 서계·도서의 위조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조선에서는 대마도주에게 문인발행권을 주고 왜인들에 대한 통제를 대마도주로 일원화하려 하였다.⁷²⁾

4) 사무역(私貿易)의 허용과 교역품의 처리 문제

가장 대표적인 조선과 일본의 무역 형태는 조선이 경제 주체인 조공무역(朝貢貿易)이다. 조공무역은 조공관계라고 하는 동아시아 특수한 국제질서 속에서 발생하는 물자의 무역이라는 점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공무역(公貿易)이라 할 수 있다.⁷³⁾ 무역의 방식으로는 우선 공사(貢使)에 의해서 휴대한 공식 공물 및 그것에 대한 조선 측의 답사(答賜)라는 교환(交換)관계, 공사에 부수한 객상(客商)에 의한 서울 동평관에서의 교역, 그리고 공사에 부수한 상인단(商人團)이 삼포와 같은 해항(海港)이나 상경로(上京路)중에 행하는 조선 측 상인과의 교역이다. 이 교역에서 지불수단은 당시 대용 통화였던 면포(綿布), 마포(麻布), 면주(綿紬), 미곡(米穀) 등이 중심이었다. 그리고 대가의 기준은 조선 국내시장의 가격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⁷⁴⁾ 문제는 밀무역의 성행이었다. 태종 11년(1411) 여량군(礪良君) 송거신(宋居信)

70) 한문중 「조선전기 倭人統制策과 통교위반자의 처리」, 『일본사상』 7, 2004, p58.

71) 하우봉 「조선 전기의 부산과 대마도」, 『한국해양사연구총서3 - 부산과 대마도의 2천년』, 부경대 대마도 연구센터, 국학자료원, 2010, p154.

72) 한문중 「朝鮮前期의 受圖書倭人」, 『한일관계사연구』, 1996, 5, p54.

73) 정지연 「朝鮮前期 對日 私貿易 研究」, 『한일관계사연구』 24, 한일관계사학회, 2006, 4, p35.

74) 이정수 「15·16세기의 對日貿易과 經濟變動」, 『역사와 세계』 22, 효원사학회, 1998, 9, p123.

이 왜관에서 금은(金銀)을 사용하여 동평관의 왜관(倭館)과 무역한 일이 발각되어 사헌부에 탄핵당한 일이 있었다.⁷⁵⁾ 태종 14년(1414)의 기사에서도 판의정(判議政) 남재(南在), 부원군(府院君) 유양(柳亮), 정탁(鄭擢), 전 경력(經歷) 허반석(許盤石) 등도 백은(白銀)·인삼(人蔘) 등의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시켜 무역을 하다 발각되기도 하였다.⁷⁶⁾ 왜통사(倭通事)의 밀무역도 성행했는데, 왜통사는 일본 측의 사신을 접대하는 일과 조선에서 일본으로 사신을 파견하는 경우, 그 수행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등 일본 통교자들과 직접 접촉하였기 때문에 그 역할의 중요성만큼 밀무역 주선 또한 용이하였다. 세종 11년(1429) 정사 박서생(朴瑞生)의 통사로 도일(度日)한 윤인보(尹仁甫)는 사적으로 주(紬)와 저포(苧布) 4백 32필을 가지고 왜인에게 은밀히 주고 칠품금(七品金) 52냥(兩) 2전(錢)을 사가지고 왔는데, 본국 시장 가격에 비하여 정포(正布) 4백 64필 20여척이나 더 주고 돌아왔다. 윤인보에게는 장(杖) 60대에, 도(徒) 1년에 처해졌고, 물품 2푼을 징수하였다.⁷⁷⁾ 이러한 상행위는 추후 일본 통교자들에게 하사품목 수량의 척도에 불균형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졌다.⁷⁸⁾

대일무역에 있어서 사송왜인과 홍리왜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이들이 가지고 오는 물량 또한 방대해졌다. 그런 이유로 대일 무역과 관련된 지대, 운송, 금물의 매매 문제가 대두되었다. 세종 5년(1423) 6월에는 동(銅)과 단목(丹木)은 참로(站路)에서 폐단을 받는 것이 많으니, 지금부터는 육로로 수송하지 말고 해변 각 관청에서 공선(貢船)으로 유황(硫黃)과 아울러 실어서 보내라고 하였다. 나머지 진헌(進獻) 잡물(雜物)은 그 도의 감사(監司)가 상중하 3품으로 나누어 예조(禮曹)에 이관(移關)하면, 물가를 참작하여 적당하게 회사(回賜)하고, 나머지는 모두 배를 푸는 곳에서 팔아버리게 하였다.⁷⁹⁾ 그리고 세종 9년(1427)

75)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윤12월 13일 기사 2번째 기사

司憲府請礪良君 宋居信罪。居信用禁物金銀，貿易倭館，事覺。

76)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9일 신사 2번째 기사

近來於倭館，將禁物貿易者頗多。判議政南在、府院君柳亮・鄭擢、前經歷許盤石等亦將白、銀人蔘等物，令人貿易。

77)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7월 7일 을사 4번째 기사

78) 정지연 「朝鮮前期 對日 私貿易 研究」, 『한일관계사연구』 24, 한일관계사학회, 2006, 4, p50.

79) 『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6월 26일 을해 2번째 기사

에는 동철과 단목은 짐이 무거운 까닭으로 서울로 운반할 수 없으니, 장사치들이 화매(和賣)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였다.⁸⁰⁾ 이는 동철과 단목 같이 짐이 무거운 물품은 국용(國用)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사무역을 허용했던 것이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성주목(星州牧) 창고(倉庫)편에 따르면 세조(世祖) 때에 화원현(花園縣) 읍내 남쪽에 창고를 따로 세웠는데, 왜국 사신이 가지고 오는 동(銅)·철(鐵)·소목(蘇木) 등 여러 가지 물건을 저장하여, 지출하는데 이용했다는 기사가 보인다.⁸¹⁾ 세조대에 이미 서울까지 올라 오기 힘든 물품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가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성종 3년(1472년) 실록의 기록을 보면 농사 달에 운반하는 폐단이 적지 아니하니 성주의 화원현에 수송하였다가 나라에서 사용할 만한 것은 농사의 틈을 기다려서 적당한 수량을 상납(上納)하게 하고, 그 나머지 물품은 백성들의 무역을 허락한다는 것이다.⁸²⁾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품은 농번기에 수송하는 폐단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농한기가 올 때까지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필요한 물품은 서울로 올려 보내고 잔여품은 백성들에게 무역을 허락했음을 보여준다.

禮曹啓: "倭客人連續所獻銅與丹木, 輪轉站路, 受弊不小。自今除陸路輪轉, 輪納海邊各官, 待本道貢船上來時, 與硫黃並載上送。其所獻雜物, 令其道監司, 分上中下三品, 移關本曹, 本曹參考物價, 量宜回賜。其客人私齎丹木銅, 臨時量數上送, 其餘並於下船處和賣。" 從之。

80)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28일 계미 2번째 기사

慶尙道監司推問和買倭客銅鐵人以啓, 上曰: "私買銅鐵有禁乎?" 禮曹判書申商曰: "自鑄錢之後, 爲國用有禁。" 上曰: "銅鐵丹木負重, 故不輸於京, 商賈和買無妨。"

81)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28권, 성주목(星州牧) 창고(倉庫)편, 《한국고전종합DB》

花園倉。舊借仁興寺, 儲本縣軍資米穀, 我世祖朝別建于縣治南偏。倭使齎來銅、鐵、蘇木等雜種物, 并輸貯于此, 以供支用。

82) 『세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2일 정해 4번째 기사

輸于星州 花園縣, 宜於國用者, 俟農隙酌量上納, 其餘物, 聽民貿易。

2. 유구(琉球)와의 무역

1) 대유구 무역의 전개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고려 공양왕(恭讓王) 2년에 유구 중산왕(中山王) 찰도(察度)가 신하를 칭하며 예물을 바친 기록이 있다.⁸³⁾ 이후 조선 태조 때에도 사신을 보내 조회하였다.⁸⁴⁾ 신숙주(申叔舟)는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 유구 국속(國俗)에서 “땅이 좁고 사람이 많으므로 해상무역을 업으로 삼는다.”⁸⁵⁾ 라고 하였다. 당시 유구는 명과 고려, 일본과의 교역에서 유구에서는 산출되지 않는 물품을 많이 교역하는 것으로 보아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중계무역으로 국가의 재정을 보충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 들어와서도 유구와의 교류는 이어졌는데, 조선의 입장에서 유구는 교린의 대상이 아니었다. 태조 1년 유구국(琉球國)의 중산왕(中山王) 찰도(察度)가 신하라 일컫고 글을 받들어 통사(通事) 이선(李善) 등을 보내어 예물(禮物)을 가져와서 바치고, 아울러 사로잡혔던 남녀 8명을 송환(送還)하였다.⁸⁶⁾

유구가 1407년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이후부터 조선은 유구를 교린의 대상으로 접대하였고, 유구 사신의 대우를 일본 국왕사와 같이 3품의 위차를 주었다. 조선은 유구가 같은 유교와 한자 문화권으로 명나라의 조공체계의 등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대등한 이웃으로 교류를 하였지만, 대외적인 이유로 지속적인 교류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조선과 유구 사이의 항해의 어려움이었다. 유구와 조선 사이의 항해에는 자연적인 방해도 있었지만, 왜구나 왜인의 약탈로 유구의 배가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세종 13년 유구 사신이었던 하례구(夏禮久)는 자국의 배가 아닌 대마도의 상선에 편승하여 조선으로 들어왔다. 하례구는 다음과 같이 수호를 재개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

83) 『고려사』 세가 권45 공양왕 2년 8월 정해

丁亥 金允厚等還自琉球國，中山王察度又遣其臣玉之等，稱臣奉表，歸我被擄人三十七，仍獻土物。

84)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정묘 1번째 기사

85) 신숙주 『해동제국기』 ‘地窄人多以海舶行商爲業’ 《한국고전종합DB》

86)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윤12월 28일 갑진 2번째 기사

우리나라 조왕과 부왕 때부터 서로 교호의 예를 닦아 왔사온데, 그 후에 왜인이 가로 막아서 오랫동안 수호를 폐지했던 것입니다.⁸⁷⁾

이를 통해 당시 하례구가 일본상선에 편승하여 온 이유가 자국의 배를 타고 올 경우 왜인의 침략을 받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유구에서는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구인을 사신으로 파견하는 대신, 교역을 위해 유구를 찾았던 하카타(博多)의 일본인을 조선과 유구 관계의 중개자로 삼았던 것이었다.⁸⁸⁾

유구의 사신으로 조선으로 들어가 후한 대접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위사문제(僞使問題)가 대두되었다. 위사에 대한 실록의 최초 기록은 세종 5년에 나온다.

유구국(琉球國)의 사신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토산물을 가지고 와서 올리는 데, 그 서계(書契)와 도서(圖書)가 유구국의 것이 아니므로, 정부에 의논하기를 명하니, 좌의정 이원(李原)이 "서계(書契)·도서(圖書)와 객인(客人)이 모두 유구 것이 아니니, 올린 예물을 마땅히 물리치고 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⁸⁹⁾

연산 6년(1500년) 유구에서 온 신하 양광(梁廣)과 양광(梁廣)과 양춘(梁椿)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 온 지 40년 만에 우리가 또 여기에 왔습니다.” 하기로, 등록(騰錄)을 상고해 보니 그 나라 사신 온 것이 신사년(辛巳年)이었습니다.⁹⁰⁾

87)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9일 경오 1번째기사

夏禮久等對曰: “自我國祖王、父王, 相修交好之禮, 厥後倭人阻隔, 久廢修好.

88) 이지혜 「조선 전기(1392년~1638년) 對유구 관계의 변화와 인식」,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13, p18.

89) 『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1월 4일 병술 5번째기사

90) 『연산군일기』 39권, 연산 6년 11월 12일 임술 1번째기사

신사년은 세조 7년이 된다. 양광과 양춘의 말이 옳다면 그 동안의 16번의 유구 사신은 모두 위사라는 말이 된다.⁹¹⁾

2) 일본을 통한 중계무역과 위사문제(僞使問題)

유구는 명나라와 조공관계를 맺은 이후로 중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중국은 유구의 해상무역을 적극 지원하였다. 중국에서는 선박과 선원을 제공하여 유구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상대로 중계 무역을 하도록 지원하였다.⁹²⁾ 명나라의 해금 정책은 송(宋), 원(元) 시기 동남아시아와의 무역에서 한때 활약한 중국 해상세력을 대폭으로 약화시켰으며, 반대로 유구 해상무역 발전의 좋은 조건을 제공하였다.⁹³⁾ 유구의 상인들은 동남아시아와 명·조선·일본과의 중계무역을 통하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유구의 조선과의 무역은 일본 국내 정세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는데, 왜구의 창궐은 유구의 대외활동을 방해하는 위협세력이었다. 그리고 남서해상의 항행권(航行權)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사쓰마주(薩摩州)와 해외교역의 주역으로 번성한 하카타(博多)는 유구의 중계무역 기반을 점점 약화시키는 세력이었다.⁹⁴⁾

성종 대에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은 평국행(平國幸)을 보내며 지금은 단목(丹木) 같은 것을 얻지 못하나 내년에는 유구왕(琉球王)에게 청해서 구한다거나, 후추(胡椒)는 왜국(倭國)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남만(南蠻)에서 산출되어 유구국의 장사하는 사람이 남만에 들어가 구하여 얻고 여러 섬의 왜인이 이를 사들여 와서 조선에 판다고 하여 유구-일본-조선간의 중계무역 형태의 교역을 알 수 있다.⁹⁵⁾

하카타의 대표적인 상인으로 종금(宗金)과 평만경(平滿景)을 들 수 있다. 종금은 승려 겸 기내(機內)와 하카타를 왕래하는 무역선 상인으로 1420년 송희

91) 손승철 「朝·琉 交隣體制의 구조와 특징」, 『강원사학』 제13·14 합집, 1998, p209.

92) 양수지 「琉球王國의 滅亡」, 『근대중국연구』 1, 중국근현대사학회, 2004, 4, p16.

93) 왕자 「근세 동아시아 후추 무역」,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20, p171.

94) 최연주 「朝鮮과 琉球의 交流樣相과 고려대장경」, 『일본근대학연구』 45, 2014, p253.

95) 『성종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18일 신사 3번째 기사

『성종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6일 정축 1번째 기사

경(宋希璟)이 기해동정의 이유를 설명할 목적으로 파견되었을 때, 종금은 하카타부터 송희경을 접대하고, 교토(京都)로 갈 때 함께 동행하였다. 평만경은 하카타 석성(石城) 지역의 통교자로 종금과 같이 송희경이 파견되었을 때 호송을 담당하였고, 피로인의 송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⁹⁶⁾

그동안 유구는 포로인과 표류민 송환을 명분으로 조선과 무역이익을 챙겼다. 그러나 유구에서 조선으로 가는 항해는 일본 상인이나 왜구에게 습격당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유구는 15세기 중반 방침을 바꿔 조선에 직접 무역선을 파견하지 않고 규슈(九州)나 대마도 상인을 매개로 하여 중계무역 방식을 취했다. 이로 인해 유구의 사자(使者)라고 칭하는 위사(僞使)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⁹⁷⁾

<표1>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유구 사신의 내조 (태조~성종)

시기	내조 횟수	위사 관련 기록
태조	4회	
정종	1회	
태종	2회	
세종	5회	5-1-4-5 ⁹⁸⁾
단종	1회	
세조	15회	
성종	13회	3-1-17-4, 11-6-10-3, 24-6-9-3, 25-3-20-6

유구국 중산왕(中山王)의 사자(使者) 하카타(博多) 사람 도안(道安)은 유구와

96) 이근우, 공미희 『세종실록 속의 대마도·대마도 일본기사 1』, 『소명출판』, 2019, pp59~61.

97) 허경진, 조영심 「조선인과 류큐(琉球)인의 소통 양상」, 『일어일문학』 54, 대한일어일문학회, 2012, 5, p372.

98) 『세종실록』 세종 5년 1월 4일 5번째 기사를 의미한다.

사쓰마(薩摩)가 서로 통호(通好)하기 때문에 하카타 사람으로 사쓰마를 거쳐서 유구국에 가는 자는 장애(障礙)가 없었으나, 근래 서로 화목(和睦)하지 못하여 노략질을 마구 행한다고 한다.⁹⁹⁾ 유구국의 사자가 직접 오는 것이 힘들어 하카타의 상인인 자신이 사자로 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성종 9년(1478년)에도 사쓰마주와 하카타의 사람이 유구국에 가서 서계를 청해 받아 가지고 온 경우도 있었는데, 임금은 비록 위사(僞使)라 하더라도 힐문하지 말고 접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도 거짓 사자가 그치지 않을까 염려하는 기사가 있다.¹⁰⁰⁾ 성종 24년(1493년) 유구국 사신 야차랑(也次郎)이 가지고 온 서계가 의심스러워 힐문하였더니, “이에 앞서 하카타(博多) 사람 도안(道安)이 수 차 유구 국왕의 서계를 받아 귀국(貴國)에 사신으로 왔었는데, 저도 하카타 사람입니다. 비록 본국에 사는 자라 하더라도 간혹 나라의 일을 알지 못할 수도 있는데 더구나 저는 다른 곳의 사람이니, 유구 국왕이 쓰는 인신(印信)이 하나인지 둘인지 혹은 열 개에 이르는지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답(答)하는 서계를 빨리 써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¹⁰¹⁾ 도안과 야차랑 같은 하카타의 상인들이 유구와 중계무역을 하면서 때로는 서계를 받아 사자가 되거나, 또 때로는 서계를 위조해 유구의 위사 행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홍리왜인의 자격으로 하는 교역보다 사신으로 교역하는 편이 조선 조정에서 대하는 접대의 수준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교역품에 대한 값을 후하게 매겨 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서구열강의 아시아 진출과 유구 중계무역의 쇠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성종 이후로는 후추를 제외한 정향, 육두구 등의 향신료의 교역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조선 초기에 비하여 교역이 줄어들게 된 이유를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99)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5월 11일 정묘 3번째 기사

琉球國與薩摩和好，故博多人經薩摩往琉球者，未有阻礙。近年以來，不相和睦，盡行擄掠。

100) 『성종실록』 97권, 성종 9년 10월 15일 계묘 1번째 기사

『성종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10일 기미 1번째 기사

101) 『성종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12일 갑술 1번째 기사

우선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선 내에서 수요가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향신료의 가격이 고가여서 향신료를 구입할 수 있는 계층은 한정되어 있었고, 또한 향신료를 음식의 조미용 보다는 약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향신료의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구의 중계무역 쇠퇴를 이유로 들 수가 있다. 유구가 중계무역으로 전성기를 누리게 된 계기는 명(明)과의 조공(朝貢) 관계를 맺으면서부터이다. 유구는 다른 나라와 달리 명으로부터 항해용 선박을 사여(賜與)받았다. 뿐만 아니라 명에서는 민지방(閩-福建) 출신의 배를 잘 운행하는 36성(姓)의 배사람도 유구로 이주시켜 조공왕래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명에서 유구에게 민인(閩人) 36성을 준 연대는 명 태조(太祖)와 성조(成祖) 때였고, 신종(神宗) 때에도 ‘재사(再賜)’, ‘속사(續賜)’한 적이 있다. 유구는 명에 대한 조공관계에 이들을 활용했을 뿐 아니라 중산왕(中山王) 상파지(尙巴志)에 의해 왕국이 통일될 때부터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 대한 외교와 무역을 그들의 자제들에게 맡겼다.

『유구역대보안(琉球歷代寶案)』의 기록에 따르면 남해국가들과 왕래한 1425년~1570년까지 145년간에 통사(通事)로 활약한 자제들은 71명이고 177회나 왕래하였다.¹⁰²⁾ 그러나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유구의 중계무역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의 유럽 세력의 아시아 진출 및 명나라의 해금정책 완화, 사쓰마에 의한 침공과 관련되어 있다.

1498년 포르투갈은 희망봉을 거쳐 인도로 오는 항로를 개발하고, 인도 고아(Goa)에서 정향과 육두구를 교역해 유럽으로 가져갔다. 1511년 알부케르크(Afonso de Albuquerque)가 말라카를 정복한 직후 포르투갈은 중국과 활발한 교역을 시작하였다. 1557년 마카오(澳門)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중국과 일본 남부의 규슈에서도 교역을 시작했다.¹⁰³⁾ 특히 임진왜란이 끝나고 명조정이 일본과의 무역을 금지하자 포르투갈 상인들은 일본과 중국 간의 중계무역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102) 양수지 「朝鮮·琉球 關係 研究-朝鮮前期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3, pp25~26.

103) 윌리엄 번스타인 지음, 박홍경(역) 『무역의 세계사』, 라이팅하우스, 2019, p298.

스페인인 16세기 마닐라(Manila)를 정복하고 당시 아시아의 은 가격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은을 신대륙으로부터 가져왔다. 마닐라 항구에는 중국의 복건(福建) 상인이 중국의 비단, 도자기, 칠기 등을 대량으로 가져오고, 동남아시아 상인은 향신료와 상아를 가져왔다. 스페인인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었고, 많은 복건 상인들이 은을 중국으로 가져갔다.¹⁰⁴⁾

네덜란드인은 1621년 반다(Banda)제도를 정복하여, 육두구의 주요 원산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고,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세력을 떨치고 있던 동남아시아의 각지에서 점차 상업기지를 확보하였다.¹⁰⁵⁾ 네덜란드는 향신료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향신료 재배과정도 까다롭게 관리했다. 육두구와 정향 같은 향신료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나무의 수를 제한하였다.¹⁰⁶⁾

명(明)은 왜구를 금압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해금정책을 실시하였고, 어느 정도 실효를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16세기 들어 일본은 전국시대(戰國時代)에 돌입하게 되고, 명의 동해안은 다시 왜구가 창궐하게 되었다. 명 가정제(嘉靖帝) 이르러서는 왜구 발생이 600여 차례로 가장 극심했던 시기이다. 이에 명 조정 내부에서는 왜구의 금압을 위해서 실시한 해금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다. 중국의 해적들이 왜구의 복식(復飾)과 기치(旗幟)를 착용하고 또한 배를 나누어 타고 내지를 약탈¹⁰⁷⁾하기도 하였고, 일본의 상인이나 포르투갈의 상인들과 결탁하여 밀무역에도 가담하기도 하였다. 결국 1567년 복건성 월항(月港)을 개항하여 상인의 출항을 허락하였다. 월항의 개항에 의해 중국의 해상(海商)은 여송(呂宋-필리핀) 등 동양(東洋) 21항, 섬라(暹羅-태국),

104) 미야자키 마사카츠 지음, 이근우(역) 『해도의 세계사』, 어문학사, 2017, pp222~223.

105) 신윤길 「17세기 양 동인도회사의 향료·후추 쟁탈무역 연구」, 『서양사학연구 창간호』, 1998, p242.

106) 프레드 차라 지음, 강경이(역) 『향신료의 지구사』, 휴머니스트, 2014, p133.

1714년에는 몰루카 제도 북부에서 정향이 150만 파운드 재배됐는데, 이듬해인 1715년에는 생산량이 20만 파운드에 불과했다. 또한 1719년에는 수확량이 무척 많았던 반면 유럽의 수요가 저조해서 정향 450만 파운드, 육두구 150만 파운드를 처분해야 했다. 어느 한 해에 네덜란드는 공격적으로 향료를 심었고 이듬해에는 수십만 그루를 베어냈다. 윌리엄 번스타인 지음, 박홍경(역) 『무역의 세계사』, 라이팅하우스, 2019, p367.

107) 『明史』 권322, 열전 제210 외국3 일본편. 《동북아 역사넷》

구항(舊港-스마트라), 간포채(東埔寨-캄보디아) 등 서양(西洋) 22항의 동남아 43항과 대만(臺灣) 2항에의 도항이 허용되었다.¹⁰⁸⁾

일본에서는 1604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주인선(朱印船) 제도를 정비하여, 1604년부터 1635년까지 32년간 약 350척의 배가 일본에서 대만, 베트남 북부, 중부, 남부, 태국, 캄보디아, 루손 섬 등에 파견되었다.¹⁰⁹⁾ 그러나 1630년대에 막부가 쇄국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일본과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직접 교역은 자취를 감추었다. 쇄국정책을 실시한 결과 외국선박 중에 유일하게 중국선과 네덜란드선의 나가사키 입항만이 허가되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지역을 경유하여 나가사키에 입항하는 중국선과 네덜란드 선박을 통해 동남아시아 물품은 일본에 유입될 수 있었다.¹¹⁰⁾

이렇듯 동남아시아의 해역은 각국의 무역으로 치열한 각축장이 되었다. 세력이 약하고 규모의 무역 선단을 확보하지 못한 유구로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었고, 지금까지 중계무역으로 얻을 수 있었던 부를 더 이상 축적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1609년 에도 막부의 승인의 받은 사쓰마번의 침공으로 유구는 일본의 조공국으로 전락하게 된다. 조선 중기 이후 조선에 들어오는 동남아산 물품은 대마도번이 나가사키에 수입된 것을 재구입한 물품들이었을 것이고, 향신료의 주산지는 유럽의 세력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유럽의 수출되는 정도의 고가의 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면 구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3. 동남아시아와의 무역

문헌상 동남아시아 국가 사절이 내빙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 공양왕(恭讓王) 때이다. 공양왕 3년(1391) 섬라국(暹羅國) 사신 내공(奈工)이 토산물을 진

108) 민덕기 「동아시아 해금정책의 변화와 해양 경계에서의 분쟁」, 『한일관계사연구』 39, 한일관계사학회, 2011, pp196~197.

109) 일본 막부가 발급한 무역 허가증인 주인장(朱印狀)을 지닌 경우 해외에서 무역을 허가해 주었다. 미야자키 마사카츠 지음, 이근우(역) 『해도의 세계사』, 어문학사, 2017, p243.

110) 윤유숙 「조선후기 조선·일본의 동남아시아 산물 교역」, 『한일관계사연구』 70, 한일관계사학회, 2020, p187.

헌하였다.

섬라곡국(暹羅斛國)에서 내공(奈工) 등 8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며 글을 올려 이르기를, “섬라곡국 왕이 이번에 내공 등을 사신으로 삼아서 배에 토산물을 싣고 가서 고려국왕(高麗國王)에게 바칩니다.”라고 하였다. 성명과 봉한 표식이 없이 작고 동그란 도장만 있어서 확인할 수가 없었다. 나라에서 그것이 위조일까 의심하여 의논하기를, “믿을 만하지 않으나, 또 믿지 않을 수도 없다. 또한 오는 사람들은 거부하지 않고 후대하는 것이니, 멀리서 온 사람들을 예로써 대하되 그 글은 받지 않아서 의혹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¹¹¹⁾

사신 일행이 바친 서신을 보면, 내공 등을 섬라곡국의 조정이 공식적으로 파견한 사절로 소개하고 있지만, 섬라곡국 국왕의 이름이나 정부의 고위대신의 이름도 담고 있지 않다. 서신은 또한 어떠한 문자나 특별한 보여주지 않는 작은 도장만 찍혀 있고 봉인되어 있지 않아 국서(國書)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다. 고려 조정이 그 서신의 진위를 의심하여 공식적인 서신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¹¹²⁾

조선이 개국한 이후 제일 먼저 내조한 국가는 섬라곡국이었다. 1391년 내공이 다녀간 2년 이후 태조 2년(1393) 6월에 내조한 섬라곡국의 장사도(張思道) 일행이었다.

섬라곡국(暹羅斛國)에서 그 신하 내(乃) 【내(乃)는 그 나라 관직 이름이다.】 장사도(張思道) 등 20인을 보내어 소목(蘇木) 1천 근, 속향(束香) 1천 근과 토인(土人) 2명을 바치니, 임금의 두 사람으로 하여금 대궐 문을 지키게 하였다.¹¹³⁾

새로운 왕조가 개창한 후 먼 곳에서 오는 사절단은 조선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왕조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좋은 증명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조

111) 『고려사』 세가 권46, 공양왕 3년 7월.

112) 조흥국 「근대 이전 한국과 동남아시아간 접촉에 대한 역사적 고찰」, 『국제·지역연구 8권 1호』, 1999, pp28~29.

113)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6월 16일 경인 1번째 기사

정에서는 장사도 일행이 귀국할 때 회례사(回禮使)로 예빈 소경(禮賓少卿) 배후(裴厚)를 동행시켰다. 하지만 1393년 12월에 일본에 이르렀다가 왜구에게 예물과 행장을 모두 약탈당하였다.¹¹⁴⁾ 조선 조정은 약탈을 당하고 돌아온 장사도(張思道)를 예빈경(禮賓卿)으로 삼고, 일행 진언상(陳彦祥)을 서운부정(書雲副正)에 임명¹¹⁵⁾하여 위로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조선 조정은 장사도의 일행을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두고, 고려 말기에 내병한 내공과 달리 정식 사절단으로 인정한 것이다.

섬라곡국에서는 회례사로 온 조선 사절단에 대한 답례로 임득장(林得章)을 사신으로 삼고 조선 사절단과 함께 조선으로 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선 사절단과 임득장 일행은 나주 바다 가운데에서 왜구에게 습격을 당하였고, 이때 배에 승선했던 대부분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단지 통사 이자영은 왜구에게 사로잡혀 갔다가 태조 5년(1396)에 일본에서 귀환하였고, 이듬해(1397)에는 섬라곡국 사신 임득장(林得章) 등 6인이 일본에서 도망쳐왔다. 조선 조정에서는 임득장 일행에게 의복을 주면서 위로하였다.¹¹⁶⁾ 이후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섬라곡국의 사신의 내조에 대한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태종 6년(1406) 조와국(爪哇國)¹¹⁷⁾ 사신 진언상(陳彦祥)이 조선으로 오는 길에 군산 앞바다에서 왜구에게 습격을 당하였다. 배 속에 실었던 화계(火雞)·공작(孔雀)·앵무(鸚鵡)·앵가(鸚哥)·침향(沈香)·용뇌(龍腦)·호초(胡椒)·소목(蘇木)·향(香) 등 여러 가지 약재와 번포(蕃布)를 모두 약탈당하고, 피로(被虜)된 자가 60인, 전사자(戰死者)가 21인이었으며, 오직 남부(男婦)를 합해 40인만이 죽음을 면하여 해안으로 올라 왔다¹¹⁸⁾ 진언상은 태조 3년 장사도가 예빈경이란 관

114)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7월 5일 임인 2번째 기사

섬라곡(暹羅斛)의 사절 장사도(張思道) 등이 돌아와서 말하였다.

"작년 12월에 회례사(回禮使) 배후(裴厚)와 함께 일본에 이르렀다가, 도적에게 약탈당하여 예물과 행장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다시 배 한 척을 꾸며 주시면 금년 겨울을 기다려서 본국에 돌아가겠습니다."

115)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8월 7일 갑술 2번째 기사

116)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7월 11일 병인 1번째 기사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23일 을사 2번째 기사

117) 조와국(爪哇國)은 자바(Java)로 현재의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있던 나라이다. 14세기에는 마자파히트 왕국이 향신료 무역의 중계로 부강해졌으며, 당시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에서 세력을 떨쳤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118)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11일 정유 3번째 기사

직을 받았을 때 서운부정으로 임명 된 인물이었다. 아마도 태조 때에 받았던 후한 대접에 이번에는 조와국의 사신으로 온 화상(華商)으로 보인다.

비록 야인(野人)과 관계된 것이지만 ‘오랑캐를 대접하는 도리는 그들이 오면 어루만져 주고 가면 뒤쫓지 아니하여, 원망을 맺지 않고 혼단(釁端)을 일으키지 않는다.’¹¹⁹⁾ 라거나 ‘예로부터 이적(夷狄)을 대하는 도리는 오면 무휼하고 가면 뒤쫓지 않았으니, 단지 기미(羈縻)할 뿐이었습니다.’¹²⁰⁾라는 『조선왕조실록』 기사가 있다. 이는 적례적인 교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웃국가에 대하는 조선 조정의 기본적인 대외 정책이었다. 고려 공양왕 때의 집권 세력은 신진 사대부였고, 이들은 조선을 개창하는 주도 세력이었다. 이들의 대외 정책은 조선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공양왕 때에 내빙한 섬라곡국의 내공을 대하는 고려 조정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 조선 초의 섬라곡국의 장사도나 조와국의 진언상을 대접 또한 다르지 않다. 결국 조선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하여 적례, 즉 대등한 상대가 아닌 기미의 대상으로 보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조선 초기 조정은 섬라곡국이나 조와국을 기미의 대상으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 개창된 국가에 대한 외국의 사절단으로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두었을 것이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진귀한 물품에 대한 호승심과 교역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도 고려했을 것이다.¹²¹⁾ 그러나 조선과 동남아시아와의 무역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이는 명(明)나라의 해금정책(海禁政策)과 관련이 있다.

명나라의 해금령(海禁令) 반포는 명나라 태조 홍무제(洪武帝) 4년(1371)이다. 명나라가 해금정책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명나라 초기 중국의 동남 연해를 중

119)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9일 경자 3번째 기사

120) 『세조실록』 11권, 세조 4년 2월 18일 정미 2번째 기사

121) ‘전하께서 즉위(卽位)하신 이래 문(文)을 높이고 무(武)를 숭상하여, 선비는 힘쓰고 군사는 강하여 그 위엄(威嚴)이 인적(隣敵)에게 가해져서, 유구(琉球)·섬라(暹羅)·왜국(倭國)의 사람이 내부(來附)하지 않음이 없으니, 진실로 천재(千載)에 드문 일입니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14일 임오 2번째 기사.

태종 9년이면 1409년이다. 태조 이후 섬라곡국에서 내조한 기록은 없지만, 사신의 내조는 태종의 입장에서 외부의 승인으로 볼 수 있어 왕위의 정당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개창된 국가의 첫 왕이었던 태조의 경우는 새로운 국가의 인정도 포함된 것이었기에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둘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유구나 일본을 통하여 들어왔던 남방 교역품에 대해서 조선 조정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직접적인 통교를 통한 무역의 이익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심으로 활동한 방국진(方國珍) 등 해상군사 세력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 시기 즈음하여 한반도와 중국 동부 연해에서 활동한 왜구의 존재 역시 해금실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¹²²⁾ 홍무제 주원장(朱元璋)은 해금정책으로 민간 무역을 금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였다. 새로운 제도란 해외 여러 나라가 조공과 함께 교역품을 가져오게 하고 제한된 장소와 시간 안에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다. 영락제(永樂帝) 시기에는 백성들의 해외무역을 금지하면서 정화(鄭和)를 해외로 보내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상품을 대거 가져왔다. 정화의 선단(船團)은 강력한 국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연속적이고도 대규모적인 항해로서 동남아 해상무역로를 개통하고 확장하였다. 이런 조공 관계 네트워크의 확장은 해상무역에 효과적인 상품 운송의 편리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무한한 상업적 기회를 가져다주었다.¹²³⁾ 그 결과 명나라 조정은 외국과의 교역에 대해 독점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명나라 초기의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상품은 조공무역의 형태로 중국에 수입되었다. 하지만 선덕 8년(1433) 정화의 마지막 항행 이후 인도와 동남아시아와의 주동적인 무역은 중단되었고, 상당 기간 동남아시아 상품의 수입은 조공 사절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는 중국내 동남아시아 상품 가격의 폭등을 가져왔고,¹²⁴⁾ 이는 동남아시아 조공 상인들에게도 또 다른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즉 선덕 8년 이후의 해금정책은 중국 내에서는 동남아시아 상품의 수입이 감소하고 해외에서는 중국 상품의 수출이 감소하여 서로간의 지역에서 상호 교역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상품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명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조공무역과 많은 이익으로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은 명나라와의 무역에 집중했을 것이다. 조선과의 무역은 조선으로 가는 뱃길에서 만날 수 있는 왜구의 위협을 무릅쓰고까지 강행하는 것에 회의적이었을 것이고, 조선 조정 또한 중국이나 일본, 여진에 비해

122) 이준태 「중국의 전통적 해양인식과 海禁政策의 의미」, 『아태연구』 17,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10, p246.

123) 우홍 「명대(明代) 조공(朝貢) 체계를 통한 동아시아 무역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9, p146.

124) 왕자 「근세 동아시아 후추 무역」,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20, pp81~87.

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상호 통교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후 조선과 동남아시아의 무역은 계속 추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Ⅲ. 남방 무역품

1. 식용 및 약용품

1) 후추(胡椒)

후추¹²⁵⁾는 덩굴식물로서 인도의 말라바르(Malabar) 해안이 원산지이다.

유구는 섬라, 말라카, 자바 등에 사신을 보내 후추, 소목 등 동남아시아 상품을 외교 교섭의 방식으로 구입하고 조공의 형식으로 명나라에 운송하여 중국의 자기, 비단 등의 상품들과 교환하였다. 유구는 조선에 사신을 보냈으며, 진상 명목으로 동남아시아 상품들을 한반도로 가져와서 무역하였다.¹²⁶⁾

<표2> 조선의 일본·유구 간의 후추 교역

시기	수량	진상국과 진상횟수
태종	100근	유구국 1회
세종	20근	유구국 1회
정종	10봉	일본국 1회
태종	수량 기록 없음	일본국 1회
세종	1,359근 9냥 이상 ¹²⁷⁾	일본국 36회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 초기 수입된 대부분의 후추는 일본을 통해

125) 후추나무는 후추과에 속하는 상록덩굴식물로 인도 남부가 원산지이다. 줄기는 목질(木質)이며, 마디에서 착생근(着生根)이 자라서 다른 물체에 붙어서 자란다. 잎은 어긋나고 두꺼우며, 넓은 달걀 모양 원형이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꽃은 4~10월 사이에 피며, 수상화서(穗狀花序: 한 개의 긴 꽃자루에 여러 개의 꽃이 이삭처럼 붙어 피는 꽃차례)를 이룬다. 열매는 둥글고 지름 5~6mm이며 자루가 없고, 10월에서 이듬해 4월 사이에 붉게 익는다. 후추는 고기의 누린내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일찍부터 향신료로 이용하여 왔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후추)》

126) 왕자 「근세 동아시아 후추 무역」,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20, p128.

127) 이상(以上)은 실록 내 수량 기록이 없는 것도 포함된 수량이다.

서이다. 정종 1년 통신관(通信官) 박돈지(朴惇之)가 일본(日本)에서 일본의 왜구 근절책을 교섭하고 돌아오는 길에 같이 온 일본국 대장군의 사신이 대상국(大相國)의 모후(母后)의 명으로 후추 10봉이 포함된 선물을 바쳤다.¹²⁸⁾ 태종 6년 대마도 수호(對馬島守護) 종정무(宗貞茂)가 사신을 파견하여 후추, 소목, 공작을 진상하였는데, 이 물품들은 8월 남번(南蕃)의 조와국(爪哇國) 사신 진언상(陳彦祥)이 전라도(全羅道) 군산도(群山島)에 이르러 왜구(倭寇)에게 약탈을 당했던 물품들이었다.¹²⁹⁾

일본 또한 유구와 마찬가지로 후추가 자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어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후추는 중계무역에 의한 것이었다. 이는 14세기 말부터 유구의 동남아시아 무역 전개에 따라, 후추가 유구와의 무역을 통해서 대량으로 일본에 수입되었다. 그러나 이 후추 중의 대부분은 일본 서쪽의 번주(藩主)를 통해 진상품으로 조선으로 재수출되었다.¹³⁰⁾

주요 용도로는 향신료와 약용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조선초기의 기록은 매우 희소하다. 음식에 대해 후추가 사용된 최초의 문헌 기록은 조선 초기 어의(御醫) 전순의(全循義)가 지은 『산가요록(山家要錄)』¹³¹⁾ 장류(醬類)편 치장(雉醬)과 식해류 양해(臙醢)에서¹³²⁾ 후추의 사용을 기록하고 있다.

후추는 맹선(孟詵)의 『식료본초(食療本草)』에서 오장의 풍랭과 냉기로 인한 복통을 치료한다고 한다.¹³³⁾ 또한 『본초강목(本草綱目)』¹³⁴⁾에서는 후추에 대해

128)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5월 16일 을유 3번째 기사

大相國母獻刻木地藏堂主千佛圍繞一座，極精巧。絹十匹、胡椒十封。

129)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11일 정유 3번째 기사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9월 26일 임오 2번째 기사

130) 왕자 「근세 동아시아 후추 무역」,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20, p159.

131) 1450년경 어의 전순의가 지은 작물·원예·축산·양잠·식품 등을 총 망라한 농서(農書)이면서 술·밥·죽·국·떡·과자·두부 등 229가지의 조리법을 수록한 음식 책이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132) 전순의 『산가요록(山家要錄)』, 「치장(雉醬)」, ‘꿩고기를 가늘게 썬다. 식초와 소금 약간, 생강과 후추와 생과 등을 섞어서 탄알만한 환을 만들어 기름에 지진다.’, 「양해(臙醢 : 양식해)」, ‘소의 밥통[臙]을 씻어 등글고 넓적하게 썰어 후추[胡椒]를 물에 넣어서 잘 끓을 때 양을 얼른 넣고 반숙하여 꺼낸다. 아주 차게 식힌 다음 잠깐 소금을 묻혀서 축축한 밥 1그릇을 적당하게 섞고 누룩가루 1줌을 섞어서 항아리에 넣고 기름종이로 단단하게 봉하여 재[灰] 속에 깊숙이 묻어둔다. 썰어서 먹는다. 닭고기나 꿩고기를 섞어서 밥을 지으면 더 좋다.’ 『고농서국역총서』 8, 농촌중앙청, 2004, p93, p129.

서 설명하고 있다.

당신미(唐愼微)는 “단성식(段成式)의 『유양잡조(酉陽雜俎)』에서는 ‘호초는 마가타국(摩伽陀國, 중인도(中印度)지역의 옛 나라)에서 나는데, 매리지(昧履支)라 부른다.”¹³⁵⁾

이시진(李時珍)은 『본초강목』에서 후추는 지금 남쪽 변방의 여러 나라 및 교지(交趾), 전남(滇南), 해남(海南) 등지에 있다고 하였다. 이는 명나라 때에는 후추가 인도를 벗어나 동남아시아와 중국 남부에서는 재배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¹³⁶⁾ 이시진은 후추를 직접 기미를 하였는데, 화기(火氣)가 강한 사람은 후추를 멀리해야 한다고 한다.

호초(胡椒)는 맛이 매우 맵고 성질이 뜨거운 순양(純陽)의 식물이므로 장위(腸胃)가 차고 습한 자에게 써야 한다. 열병을 앓는 자가 먹으면 화(火)가 동하여 기를 상하게 하고 음액(陰液)이 손상을 받는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호초를 즐겨 먹었는데, 매년 눈병을 앓았으나 호초를 의심하지는 않았다. 후에 점차 그 폐단을 알고 나서 마침내 호초 먹는 것을 통렬히 끊자, 눈병도 멎었다. 겨우 한두 알을 먹었는데도 그 즉시 눈이 흐릿해지고 눈알이 갈갈해졌다. 이는 바로 옛사람들이 시험해 보지 않은 것이다. 대체로 매운 맛은 기를 내달리게 하고 성질이 뜨거운 것은 화를 조장하는데, 이것의 기미(氣味)가 모두 두텁기 때문이다.¹³⁷⁾

133) 『식료본초(食療本草)』는 당(唐)나라 맹선(孟詵)이 당나라 신룡연간(神龍年間, 705-706)에 저술한 『보양방(補養方)』 3권을, 후에 장정(張鼎)이 증보하여 『식료본초』로 개명한 식재료와 식치방에 관한 의서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교전DB》

134) 『본초강목(本草綱目)』은 중국 명(明)나라 때의 본초학자(本草學者) 이시진(李時珍: 1518~1593)이 엮은 약학서(藥學書)이다. 52권으로 1596년에 간행되었으며, 총계 1,892종의 약재가 망라되어 있다. 《두산 백과사전》

135) 당신미(唐愼微)는 송나라 휘종 대관(大觀) 2년(1108) 촉의(蜀醫)다.

단성식(段成式)은 당(唐)나라 때의 학자. 상서랑(尙書郎)·강주자사(江州刺史)·태상소향(太常少卿) 등의 벼슬을 역임하였다. 수필집 『유양잡조(酉陽雜俎)』가 있다.

이시진 『본초강목(本草綱目)』 권32, 愼微曰: 按段成式 『酉陽雜俎』云, 胡椒出摩伽陀國, 呼爲昧履支.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교전DB》

136) 이시진 『본초강목(本草綱目)』 권32, 時珍曰: 胡椒, 今南番諸國及交趾・滇南・海南諸地皆有之.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교전DB》

한편 『동의보감(東醫寶鑑)』 탕액편(湯液篇)에서 후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냉증에 효과가 있고 물고기나 고기의 독을 푸는데 좋다고 한다.¹³⁸⁾ 또 외형편(外形篇)에는 명치의 냉통을 멈추려면 남자는 생강 달인 물, 여자는 당귀 달인 물에 후추 49알을 넣으면 효험이 있다고 한다.¹³⁹⁾

성종 때에는 대내전(大內殿)의 사인(使人)인 원숙(元肅)이 대장경을 요청할 때 그 대가로 후추가 서질(暑疾)에 좋다하여 후추 씨와 교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 기록으로 추정하면 후추가 더위 병에도 약효가 있다고 볼 수 있다.¹⁴⁰⁾

세종24년(1442) 호조에서 명의 사신을 가지고 온 물품의 처리에 대하여 호조와 부상들이 처리하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역을 허용하도록 임금에게 주청하였다.

명의 사신의 가지고 온 물품이 많아서 공가(公家)¹⁴¹⁾에서 다 무역(貿易)해 줄 수 없으니, 한성부와 개성부의 부상(富商)들에게 사도록 하였으나, 아직

137) 이시진 『본초강목(本草綱目)』 권32, 時珍曰：胡椒大辛熱，純陽之物，腸胃寒濕者宜之。熱病人食之，動火傷氣，陰受其害。時珍自少嗜之，歲歲病目，而不疑及也。後漸知其弊，遂痛絕之，目病亦止。纔食一二粒，即便昏澀。此乃昔人所未試者。蓋辛走氣，熱助火，此物氣味俱厚故也。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교전DB》

138) 허준 『동의보감(東醫寶鑑)』 탕액편 권3, 후추는 성질이 아주 따뜻하고 맛은 매우며 독이 없다. 기를 내리고 속을 데우며, 담을 삭이고 장부의 풍냉을 없애며, 객란으로 명치가 차고 아픈 것을 멎게 한다. 냉리(冷痢)에 주로 쓴다. 온갖 물고기·고기·자라·버섯의 독을 푼다. 남방에서 난다. 모양이 서리자와 비슷한데, 양념으로 쓴다. 별을 향하는 것이 호초이고, 그늘을 향하는 것이 필징가다. 가루 내어 약에 넣는다. 부초(浮椒)라고도 한다.

性大溫，味辛，無毒。下氣溫中去痰，除藏府中風冷，止霍亂心腹冷痛，及主冷痢。殺一切魚·肉·蠶·菌蕈毒。出南方，形如鼠李子，調食用之。向陽者爲胡椒，向陰者爲華澄茄。研末入藥，一名浮椒。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교전DB》

139) 허준 『동의보감(東醫寶鑑)』外形篇 권3, ‘명치의 냉통을 멎게 한다. 술에 달인 물을 먹는다. 또 호초 49알과 유향 1돈을 가루내어 남자는 생강 달인 물, 여자는 당귀 달인 물에 먹는다.

止心腹冷痛。酒煮取汁服之。又取四十九粒，乳香一錢爲末，男用薑湯下，女用當歸湯下。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교전DB》

140) 『성종실록』 183권, 성종 16년 9월 22일 경오 3번째 기사

141) 호조(戶曹)를 의미한다. 조선시대에 호구(戶口), 공부(貢賦), 전토 및 식량과 기타 재화, 경제에 관한 정무(政務)를 맡아보던 중앙관청이다.

다 팔지 못했습니다. 청하건대, 시장 안에 있는 사람에게 11승(升) 이하의 저마포(苧麻布), 교기(交綺), 표피(豹皮), 인삼(人蔘), 단목(丹木), 백반(白礬), 후추(胡椒) 등의 물품으로 무역하도록 독려하소서.¹⁴²⁾

연산 2년(1496) 정언 남곤(南袞)이 질정관(質正官)으로 명(明)나라 서울에서 돌아와서 사행관의 후추의 밀무역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후추(胡椒)는 무역에 이익이 많기 때문에 명나라 서울에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많이 가지고 가며 또 끼워 가기에 편리하므로 서장관(書狀官) 역시 미처 찾아내지 못합니다. 후추는 우리나라 산물이 아니오니, 청하옵건대 통절히 금하여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소서.¹⁴³⁾

후추는 명의 입장에서 고가(高價)였기 때문에 명의 사신이 가지고 온 물품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북경으로 가는 사행관의 불법적인 무역의 형태로 재수출되기도 하였다.

2) 빈랑(檳榔)

빈랑나무의 열매를 약용으로 하는데 빈랑자(檳榔子) 또는 빈랑(檳榔)¹⁴⁴⁾이라 한다. 빈랑은 원산지가 동남아시아 전역(全域)이고 일본을 통해서 소량 수입되었다. 한(漢)나라 말기에 간행된 『명의별록(名醫別錄)』에 의하면 중국 남해(南海)지역에서 난다고 되어있다.¹⁴⁵⁾ 빈랑은 오래전부터 동남아뿐만 아니라 남중

142)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5일 정묘 2번째 기사

143) 『연산군일기』 19권, 연산 2년 11월 30일 계유 1번째 기사

.胡椒利於貿易, 故赴京之人必多齎去, 又便於挾持, 故書狀官亦未及檢察。胡椒非我國之產, 請痛禁, 毋使齎去.

144) 종려나뭇과의 상록 교목인 빈랑나무. 또는 그 열매. 나무의 높이는 25m 이상 자라고, 열매는 3cm 정도의 타원형이며, 노란색 · 오렌지색 · 홍색 등을 띤다. 이 열매를 빈랑(檳榔), 또는 빈랑자(檳榔子)라고 한다. 열매 껍질을 약용하는데, 빈랑에는 타닌과 알칼로이드가 들어 있어 설사 · 피부병 · 두통 등에 사용한다. 또 흉복부의 팽만 증상을 완화시키고 대소변을 잘 보게 하며, 살충제, 또는 염료로 쓰이기도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시대 대일외교 용어사전》

145) 이시진 『본초강목(本草綱目)』 권31, 檳榔生南海.

『명의별록(名醫別錄)』 중국 한나라 말기에 완간된 본초학서 약칭 별록(別錄), 편집자는 미진한(秦漢)시대 의학자들이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을 기초로 하여 약성,

국에서도 산출된 것 같다. 조선 초기 기록은 내조 8회 236근이 전부이고, 세종 초기에 몰려있다.

<표3> 조선과 일본 간의 빈랑 교역

시기	품목 기록	수량 (근)	비고
세종즉위년 10월 29일 을사 1번째 기사	빈랑	2	축전주(筑前州)석성관부(石城官府) 평만경(平滿景)
세종 3년 8월 6일 병신 3번째 기사	빈랑	15	일기주만호(一岐州萬戶) 도영(道永)
세종 5년 9월 24일 임인 4번째 기사	빈랑자	50	대마도 도만호(都萬戶)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郎)
세종 5년 10월 4일 신해2 번째 기사	빈랑	126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정성(宗貞盛)
세종 5년 10월 25일 임신 6번째 기사	빈랑	20	구주 총관(九州總管) 원의준(源義俊)
세종 6년 6월 16일 기미 5번째 기사	빈랑자	10	구주 총관(九州總管) 원의준(源義俊)
세종 6년 8월 21일 계해 11번째 기사	빈랑자	10	축주 자사(筑州刺史) 등원만정(藤源滿貞)
세종 9년 1월 13일 임인 7번째 기사	빈랑	3	일기주(一岐州) 지주(知主) 원조신중(源朝臣重)

동의보감의 탕액편과 내경편에 따르면 빈랑은 성질이 따뜻하고도 하고 차다 고도 한다. 맛은 매우 매우며 독은 없다. 관절과 신체의 아홉 개의 구멍에 기를 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장육부(五臟六腑)에 막힌 기를 푸는 약효가 있다. 장충(長蟲), 적충(赤蟲), 요충(蟯蟲) 등의 기생충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다.¹⁴⁶⁾ 하지만 『식품집(食品集)』에서는 빈랑을 많이 먹으면 진기(眞氣)를 손상

효용과 새로운 약물의 품종을 더하여 만든 책이다. 《한국전통지식포탈》

146) 허준 『동의보감(東醫寶鑑)』湯液篇 권3, 성질이 따뜻하고 차다고도 한다. 맛은 매우며 독이 없다. 모든 풍을 없애고 모든 기를 내리며, 관절과 구구(九竅)를 잘 통하게 하고 곡식을 소화시키며, 수기를 몰아내고 담벽(痰癖)을 없애며 수종을 내리고 정가가 맺힌 것을 깨뜨리며, 오장육부의 막힌 기운을 잘 돌게 한다. 뽕죽하고 길면서 자주색 무늬가 있는 것을 빈(檳)이라 하고, 둥글면서 작은 것을 랑(榔)이라고 하

시키니 주의해야 한다고 되어있다.¹⁴⁷⁾

3) 정향(丁香)

정향¹⁴⁸⁾은 정향나무의 꽃봉오리를 말린 것으로 정자향(丁子香)이라고도 한다. 정향피(丁香皮)는 정향나무의 껍질을 말한다. 꽃봉오리가 분홍색을 띠고 꽃잎이 벌어지기 전에 따야 한다. 그런 다음 햇볕이 잘 드는 노지에 깔개를 깔고 숨털처럼 가벼워지고 색이 붉은색에서 진한 갈색이 될 때까지 말려야 한다.¹⁴⁹⁾ 원산지는 인도네시아 화산 군도인 말루쿠(Maluku) 제도이다.

<표4>조선과 일본 간의 정향과 정향피의 교역

시기	품명	수량 (근)	진상인
세종즉위년 9월 18일 을축 3번째 기사	정향	15	일기 만호(一岐萬戶) 도영(道永)

는데 지금은 그렇게 세분하지는 않는다. 다만 닭의 심장 모양이고 바로 세워 놓을 수 있으며, 속이 비어 있지 않고 깨뜨리면 비단무늬가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햇볕을 향한 것이 빈랑이고 그늘을 향한 것이 대복자인데, 쇠나 돌처럼 무거워 가라앉는 성질이 있다. 흰 것은 맛이 매워 대부분 기를 홀고, 붉은 것은 쓰고 뽕어 충을 죽인다. 삼충·복시 및 촌백충을 죽인다. 붉고 맛이 쓴 것이 충을 죽인다. 습지에 싸서 구워 가루내고, 2돈씩 파와 꿀을 달인 물로 빈속에 타 먹으면 효과가 있다.

性溫一云寒，味辛，無毒。除一切風，下一切氣，通關節，利九竅，消穀，逐水，除痰癖，下水腫，破癥結，宣利五藏六府壅滯氣。尖長而有紫文者，名曰檳，圓而矮者，名曰榔。今不復細分。但取如雞心狀，存坐正穩，心不空，破之作錦文者爲佳。向陽者，爲檳榔，向陰者，爲大肚子，性沈有若鐵石之重。白者味辛多散氣，赤者味苦澁殺蟲。/ 內景篇 권3, 殺三蟲，伏尸，及寸白諸蟲。赤色味苦者，殺蟲。炮爲末，每二錢，空心，以葱蜜湯調下卽效。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교전DB》

147) 오록(吳祿) 『식품집(食品集)』 권上, 『식품집(食品集)』은 음식의 한온(寒溫)·감고(甘苦)·보후(補煦)·금기(禁忌)에 대한 설명이 실려있는 서적이다. 가정(嘉靖) 병진년(1556) 명(明)나라 오강현(吳江縣) 의학후결훈과(醫學候缺訓科) 오록(吳祿) 자학(子學)이 찬집하였다. 多食，傷眞氣。《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교전DB》

148) 말린 정향나무의 꽃봉오리. 또는 그 꽃봉오리를 말린 약재. 정향과에 속하는 정향나무의 꽃봉오리를 건조한 것으로, 꽃봉오리가 못처럼 생겼고 향이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향기가 강하고 자극적인 맛을 내기 때문에 식용으로 쓰이며,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매워, 심장이나 복부가 차서 생기는 통증, 구토, 설사 따위의 치료제로 쓰이기도 한다. 백리향(百里香), 계설향(鷄舌香)이라고도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시대 대일외교 용어사전》

149) 프레드 차라 지음, 강경이(역) 『향신료의 지구사』, 휴머니스트, 2014, p25.

세종즉위년 10월 29일 을사 1번째 기사	정자향	4	개/일향주(日向州) 태수 원씨(源氏)도진원구(島津元久)
세종즉위년 10월 29일 을사 1번째 기사	정향	2	축전주(筑前州)석성관부(石城官府) 평만경(平滿景)
세종 5년 9월 18일 병신 2번째 기사	정향	5.5	구주(九州) 전 총관(總管) 원도진(源道鎭)
세종 6년 8월 21일 계해 9번째 기사	정향	50	구주(九州)의 작주자사(作州刺史) 평상가(平常嘉)
세종 5년 1월 1일 계미 3번째 기사	정향피	20	구주 총관(九州總管) 원의준(源義俊)
세종 5년 1월 28일 경술 9번째 기사	정향피	10	비주 태수(肥州太守) 원창청(源昌淸)
세종 5년 2월 5일 병진 5번째 기사	정향피	20	구주(九州) 전 총관(總管) 원도진(源道鎭)
세종 5년 7월 11일 기축 3번째 기사	정향피	10	구주 총관(九州總管) 원의준(源義俊)
세종 5년 9월 24일 임인 4번째 기사	정향피	65	축전주(筑前州) 태재(太宰) 소이(少貳) 등원 만정(藤原滿貞)
세종 5년 10월 15일 임술 3번째 기사	정향피	100	축전주(筑前州)석성관부(石城官府) 평만경(平滿景)
세종 5년 10월 18일 을축 3번째 기사	정향피	30	구주 총관(九州總管) 원의준(源義俊)
세종 5년 11월 24일 신축 3번째 기사	정향피	5	축전주(筑前州)석성관부(石城官府) 평만경(平滿景)
세종 8년 11월 1일 경인 5번째 기사	정향피	3	축전주(筑前州) 태재(太宰) 소이(少貳) 등원 만정(藤原滿貞)

<표4>에 따르면 정향의 수입은 72.5 근이고 정자향은 4개, 정향피는 263 근이다. 정향은 일본 규수의 상인들이 유구를 통하여 수입한 것을 조선으로 수출한 것이지만 그 수입량은 많지 않다.¹⁵⁰⁾

조선 초기 어의 전순의가 지은 『산가요록(山家要錄)』 주류(酒類)편 자주(煮酒)라는 술을 제조하는 것에 정향이 사용된 기록이 있다.¹⁵¹⁾

『본초강목』에서는 정향에 대해서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하고 독이 없다. 비

150) 김병하 「李朝前期에 있어서 對日南海物産貿易 (하)」, 『경제학연구』, 1967, p115.

151) 전순의 『산가요록(山家要錄)』, 「자주(煮酒)」, ‘좋은 밀랍[蠟] 2전(錢) 5푼[分], 백단향(白檀香) 8리(里) 3호(毫), 목향(木香) 1푼, 후추[胡椒] 2푼 5호, 계피(桂皮) 1푼 1리 4호, 진피(陳皮)·정향(丁香) 1푼 1리 4호. 이상의 약재와 약술 5병을 항아리에 넣고, 항아리 입구를 도련지(搗鍊紙 : 다듬잇돌에 반드럽게 다듬은 종이)와 기름종이[油紙]로 겹겹이 봉하여 단단히 막고 중탕한다. 완성되면 조금 찬 곳에 꺼내두었다가 개봉하여 먹는다.’ 『고농서국역총서』 8, 농촌중앙청, 2004, p83.

위(脾胃)를 따뜻하게 하고, 객란으로 불러 오르는 증상을 멎게 하고, 풍독으로 인한 종기와 충치를 치료하는데 좋다. 또한 ‘왕호고는 분돈기(奔豚氣)를 치료하고, 폐의 독기를 씻어 내리거나 위를 보해 줄 수도 있고, 신(腎)을 매우 잘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¹⁵²⁾

『동의보감』에는 정향의 수컷을 사용할 때 꼭지를 떼지 않고 사용하면 등창이 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⁵³⁾ 정향 중 계설향(雞舌香)은 대추만한 것인데 평소에는 향이 없지만 입안에 머금고 있으면 구취가 사라진다.¹⁵⁴⁾ 또한 급유방(及幼方)에서는 신장이 허해서 장(腸)에 경련이 생기거나 냉복통이 생기면 좋다고 한다.¹⁵⁵⁾

152) 이시진 『본초강목(本草綱目)』 권35, 辛, 溫, 無毒. 好古曰: 治奔豚之氣. 亦能泄肺, 能補胃, 大能療腎.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과전DB》

분돈기[奔豚氣-신적(腎積)]이라고도 하며 신기(腎氣)나 간기(肝氣)가 치밀어 올라 얼굴빛이 검고 통증(痛症)이 아랫배에서부터 심하(心下)까지 느껴지는 병증]

153) 허준 『동의보감(東醫寶鑑)』湯液篇 권3,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매우며 독이 없다. 비위를 따뜻하게 하고 객란을 멎게 한다. 신기[腎氣-신(腎)의 기능. 성장, 발육, 성기능과 수분 대사 등 여러 가지 기능]·분돈기[奔豚氣-신적(腎積)]이라고도 하며 신기(腎氣)나 간기(肝氣)가 치밀어 올라 얼굴빛이 검고 통증(痛症)이 아랫배에서부터 심하(心下)까지 느껴지는 병증], 냉기로 배가 아픈 것, 음부가 아픈 것을 치료한다. 양기를 돋우어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하고 반위를 치료하며, 술독을 없애고 풍독으로 부어오른 것을 삭이며, 치아의 감닉창(잇몸이 벌겋게 붓고 혈면서 아픈 병증)을 없애고 여러 가지 향기를 낸다. 수컷과 암컷이 있다. 수컷은 작고 암컷은 크다. 수컷을 쓸 때는 꼭지를 떼고 써야 등창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정향 중에 크기가 산수유만 한 것이 있는데, 민간에서는 모정향(母丁香)이라고 한다. 냄새와 맛이 매우 좋다. 못(釘)같이 생겼다. 수태음·족양명·족소음에 들어간다. 오미자·봉출과 함께 쓰면 분돈기(奔豚氣)를 치료한다.

性溫, 味辛, 無毒. 溫脾胃, 止霍亂, 及腎氣, 奔豚氣, 冷氣腹痛, 陰痛. 壯陽, 煖腰膝, 療反胃, 殺酒毒, 消風毒諸腫, 除齒疳蠱, 能發諸香. 有雌雄, 雄顆小, 雌顆大. 若欲使雄, 須去丁蓋, 免發背癰也. 丁香中有龜大 如山茱萸者, 俗呼爲母丁香, 氣味尤佳. 形似釘, 入手太陰·足陽明·少陰經. 與五味子·蓬朮同用, 治奔豚之氣.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과전DB》

154) 허준 『동의보감(東醫寶鑑)』湯液篇 권3, 구취를 치료한다. 한나라의 시중(侍中)인 응소(應邵)가 늙어 구취가 나자 황제가 계설향을 주어 입에 머금고 있도록 했다. 지금 사람들은 정향 중에서 대추씨만 한 것을 계설향이라고 부르는데, 단단하면서 말랐고 전혀 향기가 없다. 계설향은 곤륜·광동·광서에서 난다. 온갖 꽃을 따서 숙성시켜 향을 만들기 때문에 이 향을 입에 머금고 있으면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도 한다.

療口臭. 漢侍中應邵, 年老口臭, 帝賜雞舌香, 含之. 今人於丁香中, 大如棗核者, 呼爲雞舌香, 堅頑枯燥, 了無香氣. 或云, 雞舌香出崑崙交廣, 採百花釀之以成香, 故口含此香, 欲使氣芬芳耳.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과전DB》

이외에 태종 15년의 기록을 보면 정향포(丁香脯)의 기록이 나온다. 정향포란 나라의 제사(祭祀)에 쓰기 위하여 특별히 건조하여 만든 어육(魚肉)의 포(脯)인데 정향의 기름을 고기에 바르면 고기의 부패(腐敗)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정향포를 진상하는 주군(州郡)에서 괴롭기 때문에 진상의 양을 줄여줄 것을 주청하는 사례가 있다.¹⁵⁶⁾ 정향이 고가의 수입품인데다가 포육의 체제가 커서 진상을 하는데 어려움이 컸을 것이다.

『동의보감』과 실록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정향은 속이 냉한 것을 따뜻하게 보충하고 혈기가 약한 사람에게는 약이 되지만 혈이 왕성한 경우에는 오히려 몸에 좋지 않다. 계설향(雞舌香)이라고 해서 대추씨만한 정향은 향기가 없는데 입안에 머금고 있으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고기의 장기 보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4) 육두구(肉荳蔻)

육두구¹⁵⁷⁾는 인도네시아 반다(Banda) 제도가 원산지이다. 서양에서는 씨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메이스(mace)라 하여 말린 육두구와 함께 향신료로 사용되어 왔다. 육두구 열매는 둥그랗고 작은 복숭아나 살구 모양이다. 수확할 때 흑갈색 씨를 둘러싸고 있는 과육과 그물처럼 생긴 씨껍질인 빨간 메이스를 벗긴다. 벗겨낸 빨간 메이스는 납작하게 펴서 몇 시간 동안 말리면 주홍색으로 변한다. 씨를 45~60일간 말리면 씨 속에 든 씨앗 알맹이가 달각거리는데 이 씨앗 알맹이가 육두구이다.¹⁵⁸⁾

155) 허준 『동의보감(東醫寶鑑)』及幼方 권13, 정향은 성미가 맵고 뜨겁다. 비장과 위를 따뜻하게 한다. 반위를 멈춘다. 신허(腎虛)로 생긴 분돈(奔豚)이나 냉복통을 치료한다. 정향은 암수가 있다. 작은 것은 수컷이고, 큰 것은 암컷이니 바로 모정향(母丁香)이다. 모정향은 성미가 정향보다 강렬하고 향이 있는데 꼭지를 제거하고 쓴다. ○기와 혈이 왕성한 경우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丁香辛熱, 溫脾胃, 止反胃, 療腎氣奔豚, 冷氣腹痛. 有雌雄, 小者雄, 大者雌, 卽母丁香, 氣味尤香烈, 去蒂用. ○氣血盛者, 勿服.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교전DB》

156)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19일 임인 3번째 기사

157) 육두구과의 상록 활엽 교목. 높이는 10-20미터이며, 열매는 둥그런 모양의 주황색으로 익고 한 개의 종자가 들어 있다. 이 종자를 육두구(肉荳蔻)라고 하는데, 말려서 약용하거나 향미료, 향료 따위로 이용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시대 대일외교 용어사전》

158) 프레드 차라 지음, 강경이(역) 『향신료의 지구사』, 휴머니스트, 2014, p31.

<표5> 조선과 일본 간의 육두구 교역

시기	수량(근)	진상인
세종 3년 4월 16일 무신 3번째 기사	30	대마도 도만호(都萬戶)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郎)
세종 3년 8월 6일 병신 3번째 기사	20	일기주 만호(一岐州萬戶) 도영(道永)
세종 5년 1월 1일 계미 3번째 기사	20	구주 총관(九州總管) 원의준(源義俊)
세종 5년 11월 17일 갑오 3번째 기사	5	일기 수호대(一岐守護代) 원조신(源朝臣)
세종 5년 11월 24일 신축 3번째 기사	10	축전주(筑前州)석성관부(石城官府) 평만경(平滿景)

<표5>을 보면 조선 초기 육두구의 교역을 보면 총 5회 85근에 불과하다. 세종대 초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정향과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에서 산출된 물품이 유구를 통해 일본을 거쳐 조선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 초기 이후에 정향이나 육두구의 거래가 단절되다가 세조 이후 정향과 육두구의 수입이 재개되었다. 당시의 유구는 명과의 교역에서 10~20 배의 이윤을 남겼다.¹⁵⁹⁾ 세종 초기 이후 유구는 일본과의 무역보다는 명과의 무역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 의하면 육두구는 호국(胡國)에서 나며, 그 나라에서는 가구륵(迦拘勒)이라 하고 중국에서는 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송(宋)나라 인종 때 관리인 소송(蘇頌)의 『도경본초(圖經本草)』에 의하면 ‘지금도 영남의 민가에서도 심는다.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줄기가 올라오면 꽃이 피며, 6월과 7월에 채취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껍질을 제거하고 육질만 사용하는데 육질이 알차고 기름진 것이 좋다고 한다.¹⁶⁰⁾ 껍질을 향신료로 사용하는 서양

159) 우홍 「명대(明代) 조공(朝貢) 체계를 통한 동아시아 무역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9, p125.

160) 이시진 『본초강목(本草綱目)』 권40, 藏器(진장기-陳藏器: 당나라 『본초습유(本初拾遺)』의 저자)曰: 肉豆蔻生胡國, 胡名迦拘勒. 大舶來即有, 中國無之. 去殼只用肉. 肉油色者佳. 頌(소송-蘇頌: 복건(福建) 천주(泉州) 동안현(同安縣) 사람으로 자는 자용(子容)이다. 송(宋)나라 때 관리이자 천문학자(天文學者), 천문기계제작자, 약물학자(藥物學者)이다. 저서로 『도경본초(圖經本草)』, 『신의상법요(新儀象法要)』가 있

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육두구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 반다제도이지만, 송나라 때에는 중국 남부지방에서도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동의보감』 탕액편과 내경편(內景篇)에 따르면 육두구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맵다. 설사와 이질에 좋고 입맛이 없을 때 식욕을 돋우며 소화에 효과가 있다. 장(腸)이 허하여 한사가 침입함으로써 발생한 이질로 배가 아픈 때에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위장에 관련된 질병에 서용하면 좋은 것으로 보인다.¹⁶¹⁾



다.)曰：今嶺南人家亦種之。春生苗，夏抽莖開花，六月七月采。宗奭(구종석-寇宗奭：송대(宋代)의 약물학자이다. 자기의 실제 약물에 대한 오랜 관찰과 실험을 근거로 하고 여러 의학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1116년(政和 6년)에『본초연의(本草衍義)』 20권을 지었는데 늘 쓰이는 약물 460종이 실려 있다.)曰 去殼只用肉。肉油色者佳，枯白瘦虛者劣。《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교전DB》《네이버 지식백과》

161) 허준 『동의보감(東醫寶鑑)』 탕액편 권3,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매우며 쓰다고도 한다. 독이 없다. 속을 고르게 하고 기를 내리며 설사와 이질을 멎게 한다. 식욕을 돋게 하고 소화가 잘 되게 한다. 소아가 젖을 토하는 것도 치료한다. 작고 둥글며, 껍질은 자주색으로 단단하면서 얇고, 살은 맵다. 껍질을 버리고 살만 쓴다. 윤기 있고 살지며 알찬 것이 좋고, 마르고 흰색이며 살이 적은 것은 좋지 않다. 속을 따뜻하게 하고 비를 보하여 기를 내릴 수 있다. 비가 보해지면 운화 작용이 잘 되어 기가 스스로 내려간다. 갑자기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멎지 않는 설사에 주로 쓴다. 3개를 밀가루로 싸서 구운 후 가루 내어 한 번에 먹는다. 미음에 타서 먹으면 신효하다. 만약 냉리로 배가 아프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할 때는 가루 낸 것 1돈을 미음에 타서 먹는다.

性溫，味辛一云苦，無毒。調中下氣，止瀉痢。開胃消食。亦治小兒吐乳。其形圓小，皮紫緊薄，中肉辛熱。去殼只用肉。肉油色肥實者，佳，枯白而瘦者，劣也。溫中補脾，能下氣，以其脾得補而善運化，氣自下也。 / 內景篇 권4, 主泄瀉，如暴水泄不止。取三箇麴裏煨爲末，作一服，米飲調下，神效。若冷痢腹痛不能食，取末一錢，米飲下。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교전DB》

2. 비식용품

1) 수우각(水牛角)



<그림1> 각궁 육군사관학교 소장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그림2>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수우각¹⁶²⁾은 물소의 뿔을 의미하며 각궁(角弓)의 주재료이다. 각궁은 목궁(木弓)이나 죽궁(竹弓)에 비해 탄성(彈性)이 강해 사거리가 길고 파괴력이 뛰어나다. 각궁을 만들 때는 물소뿔의 바깥쪽 한 면만을 쓸 수 있고, 뿔 두 개로 활 한 자루를 만들기 때문에 각궁 제조에는 물소뿔이 대량으로 필요했다.¹⁶³⁾ 이런 이유로 조선 초기부터 수우각의 확보는 군사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하였다. 위로는 야인(野人), 아래로는 왜구(倭寇)의 방비에 각궁은 효율이 매우 좋았다. 세종 10년(1428) 임금이 명으로부터 직접 물소를 수입해 전라도에서 키우려고 하였지만, 수입이 쉽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다.¹⁶⁴⁾

162) 검은 빛이 나는 물소의 뿔로, 활이나 관복에 착용하는 허리띠의 재료로 쓰임. 흑각(黑角)은 물소의 뿔, 즉 수우각(水牛角)의 통칭이기도 하다. 물소뿔, 대나무 등의 여러 재료를 가지고 만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활을 각궁(角弓)이라고 하는데, 각궁의 주재료가 흑각이다. 이 때문에 흑각은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 들어오는 중요한 물품이었고 일본이 예물로 바치는 물품에도 포함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시대 대일외교 용어사전》

163) 민승기 『조선의 무기와 갑옷』, 가람기획, 2019, p48.

164) 『세종실록』 42권, 세종 10년 11월 19일 정묘 2번째 기사

上曰: "造弓無如水牛角, 予欲請於上國, 置之全羅道不寒之地." 兵曹判書崔閔德對曰: "臣近日都試武士, 見弓之脫弦, 數矣而不折, 皆水牛角也." 左議政黃喜曰: "水牛毛薄畏

명의 입장에서 수도작이 군용물자(軍用物資)이고, 수도작으로 만든 각궁이 야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수도작의 경외 반출(搬出)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세종17년 좌의정 최윤덕(崔潤德)은 비변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하달하였다.

평안도로 하여금 금법(禁法)을 범하여 몰입(沒入)된 잡물(雜物)을 가지고 요동(遼東)에 가서 물소뿔[水牛角]과 진사(眞絲)를 무역하여 각궁(角弓)을 만들게 할 것. 제용감(濟用監)의 포물(布物)을 가지고 요동에서 물소뿔과 진사(眞絲)를 바꾸어 군기감으로 하여금 각궁(角弓)을 제조하게 할 것.¹⁶⁵⁾

평안도에 밀무역으로 인해 몰수한 물건들과 제용감의 포물을 가지고 물소뿔[水牛角]과 진사를 구입하여 각궁을 만들게 하였다. 평안도는 조선 북방 국경지대로서 야인의 침범이 함경도와 더불어 수시로 발생하니 방비에 소홀할 수 없었고, 말을 타는 야인들을 상대로 각궁은 훌륭한 무기였던 것이다.

<표6> 일본에서 들어온 수도작

일시	수량	진상인
태종 6년 12월 21일 병오 1번째 기사	수량 기록 없음	단주수(丹州守)와 비주수(肥州守)
세종 5년 2월 5일 병진 5번째 기사	8본	소조하상가(小早河常嘉)
세종 5년 10월 27일 갑술 4번째 기사	3개	원구풍(源久豐)

<표6>의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의하면 태조부터 세종까지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수도작은 이것이 전부이다. 세종대의 두 건 모두 선왕인 태종의 선화(仙化)를 위로하기 위한 조문(弔問) 물품이다. 세종대에 들어서 여진과의 군사적

寒, 方冬, 築宇善養之, 則可生. 然買來甚難, 若請之則帝豈不許?" 上曰: "予亦以爲請之必得, 買來則難矣."

165)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4월 13일 갑인 3번째 기사

令平安道將犯禁沒入雜物, 就遼東買水牛角眞絲, 以造角弓. 一. 用濟用監布物, 換水牛角眞絲於遼東, 令軍器監製造角

긴장이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각궁의 확보는 필수적이었다. 세종 때에는 명 조정
 정에 물소의 하사를 요구하자는 논의¹⁶⁶⁾가 계속 되었고, 문종 즉위년 사신을
 통하여 물소 암수 20두를 길러서 활 제조에 이바지하기를 주청하였으나,¹⁶⁷⁾
 명나라에서 물소가 수입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훗날 세조 7년 일본국의 대내
 전(大內殿)에서 암·수 두 마리를 바쳤고,¹⁶⁸⁾ 세조 8년 유구국에서 바친 물소
 두 마리를 창덕궁(昌德宮) 후원에서 기르게 하고, 사복시(司僕寺) 관원으로 하
 여금 돌보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¹⁶⁹⁾

조선 초기 조정은 정식으로 수입되는 수우각의 양이 적을뿐더러 명에서 국외
 반출을 까다롭게 하여 밀무역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나 밀무역으로 통
 해 확보한 수우각의 양도 충분하지 못했다. 요동에서 무역의 임무를 맡은 관
 원을 요동무역관(遼東貿易官)이라 하였는데 이들을 영송(迎送)하는데 여러모로
 폐단이 크게 발생하여 차라리 요동에서 수우각 밀무역을 중지하자는 입장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종은 수우각이 본토의 소산이 아니고 활을 만드느
 데에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이므로 요동무역관을 통해 요동에서 수우각을 밀무
 역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¹⁷⁰⁾

단종 즉위년에 명으로 가는 사신을 통해 면주(綿紬)·인삼(人蔘)·피물(皮物)을
 팔아 수우각을 구입하게 하였으나¹⁷¹⁾ 수량은 늘 부족하였다. 단종 3년에는 수
 우각으로 만든 품대(品帶) 사용을 금지하였고,¹⁷²⁾ 공조(工曹)에서는 말안장의
 장식에 사용하지 못 하도록 청하였다.¹⁷³⁾ 세조대에 이르러서는 활을 제조하는
 이외의 수우각과 향각(鄉角)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였다.¹⁷⁴⁾

166)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5월 16일 계유 3번째 기사

167) 『문종실록』 3권, 문종 즉위년 8월 11일 임오 4번째 기사

168)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0월 21일 정해 1번째 기사

169)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4월 13일 무인 1번째 기사

170) 이현아 「조선전기 수우각궁과 수우각 확보 노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19, p30.

171)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7월 13일 갑진 1번째 기사

172)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5월 29일 계유 1번째 기사

173)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6월 21일 을미 2번째 기사

174) 『세조실록』 38권, 세조 12년 4월 18일 무오 4번째 기사

2) 소목(蘇木), 단목(丹木)

수입된 소목(단목)¹⁷⁵⁾은 당시 홍색의 초목염료(草木染料)인 홍화(紅花) 부족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염료로 각광을 받았다. 홍화염색은 다홍(大紅)이라 하여 면포 염색에는 적합하고 무난하였으나 생산량이 많지 못하고 고가(高價)였다. 홍화의 염색을 잡염(雜染)이라 하고 소목에 의한 목홍(木紅)을 상색(上色)이라 하여 인기가 높았다. 당시 소목은 궤내의 홍포(紅袍)를 비롯하여 조복(朝服), 공복(公服) 및 종묘용(宗廟用) 홍초(紅綃), 의장보(儀仗褌), 잡리보(雜裏褌) 등의 제조에 필히 사용되었으며, 또한 귀족 부녀자의 치마나 홍포와 같은 바깥 염색뿐 아니라 옷감의 안접 염색에도 많이 사용되었다.¹⁷⁶⁾

<표7> 조선과 일본·유구 간의 소목 교역

시기	수량	진상국 및 진상횟수
태조	1,000근	삼라국국 1회
태조	1,000근	일본국 1회
태종	100근 이상	일본국 2회
세종	76,020근 이상	일본국 96회
태종	1,000근	유구국 1회
세종	3,500근	유구국 3회

<표7>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에 수입된 소목의 대부분이 일본에 통해서 들어왔다. 소목의 출산지는 열대 기후의 동남아시아이다. 동남아시아와 유구와의

175) 속이 붉은 교목(喬木)의 일종. 속의 붉은 부분은 목홍(木紅)이라 하는 안료(顔料)의 재료로 쓰임. 홍색 물감과 약재(藥材)로 주로 쓰이며 뿌리는 황색(黃色) 물감으로 쓴다. 조선시대에는 붉은 색의 염색에 주로 충당된 염료이다. 단목은 소목(蘇木)의 약재 명칭이기도 하고 이칭이기도 하다.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조선 후기 이덕무(李德懋)의 문집』 사물편의 두주(頭註)에, 단목은 곧 ‘소목(蘇木)인데 붉은 색 염료로 쓰일 만하다. 해도(海島)에 소방국(蘇方國)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 이 나무가 생산된다. 꽃은 노랑고 열매는 푸르다가 익으면 검다.’고 하였다. 소방목(蘇枋木), 적목(赤木), 홍자(紅紫)라고도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시대 대외외교 용어사전》

176) 이정수 「15·16세기의 對日貿易과 經濟變動」, 『역사와 세계』 22, 효원사학회, 1998, p154.

무역과 달리 유구와 조선과의 무역은 유구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유구에서 조선으로 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거나¹⁷⁷⁾ 왜구의 약탈에 가진 물품을 모두 빼앗기기도 하였다.¹⁷⁸⁾ 이에 유구와 조선과의 무역은 하카타(博多) 상인을 중개자로 삼아 무역을 하거나 규슈의 일본 상인들이 유구에서 직접 사들여 조선에 판매하는 중계무역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카타는 일본에서 교토(京都) 다음가는 일본 제 2의 대도시였으며 당시 1만 호 이상의 호수를 가지고 있었고 상업과 관련된 호수도 1천 호가 넘었다고 한다. 대마도인이 유구와 직접 거래하여 조선에 진상한 수량도 적지 않으나 소목(蘇木)무역은 축전주(築前州)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하카타의 상인중에는 종금(宗金)과 같이 소목무역에 의하여 거상을 이룬 자도 있었다.¹⁷⁹⁾ 일본국 축주부(筑州府) 석성 관사(石城管事) 평만경(平滿景)의 경우 세종대에 12회 내 조하여 11,000근이 넘는 소목을 교역하기도 하였다.

<표8> 세종기 축주부(筑州府) 석성관사(石城管事) 평만경(平滿景) 소목무역

일시	수량(근)
세종 3년 9월9일 기사 4번째 기사	1000
세종 4년 7월6일 신유 3번째 기사	300
세종 5년 5월 25일 갑진 3번째 기사	500
세종 5년 6월 21일 경오 6번째 기사	1000
세종 5년 9월 18일 병신 2번째 기사	1000
세종 5년 10월 15일 임술 3번째 기사	1000
세종 5년 10월 25일 임신 6번째 기사	1000
세종 5년 11월 17일 갑오 3번째 기사	4000
세종 5년 11월 24일 신축 3번째 기사	200

177)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8월 21일 무술 8번째 기사

慶尙道觀察使報: “琉球國遣使來聘, 其使人遭風船敗, 漂失禮物, 溺死者七十餘人, 存者亦多病傷. 來泊閑山島.” 上命賜衣服, 廚傳上送.

178)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6일 을축 6번째 기사

近琉球國商船爲對馬賊所邀, 彼此死者幾乎數百, 遂焚毀舟楫, 虜掠人物。 琉球國比來貢獻于我, 故欲問其罪.

179) 김병하 「李朝前期에 있어서 對日南海物産貿易 (상)」, 『경제학연구』, 1965, p37.

세종 6년 6월 16일 기미 6번째 기사	500
세종 6년 11월 23일 갑오 2번째 기사	500
세종 7년 11월 14일 기유 7번째 기사	수량 기록 없음

그러나 많은 수량이 수입되기도 하였으나 소목은 홍화와 같이 값비싼 물품이었고, 홍화는 비록 조선 내에서 산출되는 염료인데 반하여 소목은 일본을 통해 들어온 수입품이고 실생활에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대궐에서 사용되거나 사대부들의 사치스런 의복을 꾸미는 일에 사용되었기에 사간원에서는 의대(衣櫛)와 대궐 안에서 사용되는 경우와 옷의 안접은 문무의 각 품관(品官)과 사대부(士大夫)의 자제(子弟)외에 입는 것을 금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¹⁸⁰⁾

『본초강목』에 의하면 “바다의 섬 중에 소방국(蘇方國)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 나무가 나므로 이름이 지어졌다. 지금 사람들은 줄여서 소목(蘇木)이라 부른다.”라고 하였다. 또한 “혜함(嵇含)의 『남방초목상(南方草木狀)』¹⁸¹⁾에서는 섬라국(暹羅國, 현재의 태국) 사람들은 소목을 하얗게 여겨서 땀감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있다.¹⁸²⁾ 조선에서는 귀한 염색재료이나 산출국에서는 풍부한 목재로 보인다.

원나라 왕호고(王好古)가 지은 『탕액본초(湯液本草)』에는 소목은 산후혈이 팽창하여 죽으려고 할 때, 고름을 빼서 통증을 가라앉히고, 종기나 멍든 피를 제거한다.¹⁸³⁾ 『동의보감』 잡병편(雜病篇)에서는 이런 산후의 통증이 그치지 않을 때는 소목 1냥을 썰어 술과 물로 달여 먹으면 좋다고 한다.¹⁸⁴⁾

180) 『세종실록』 35권, 세종 9년 2월 19일 정축 7번째 기사

181) 혜함(嵇含) 『남방초목상(南方草木狀)』, 중국 진(晉)나라 혜제(惠帝) 때(290~306) 때 대신을 역임한 저자 혜함(嵇含)이 찬술한 남방 식물의 전래에 관한 내용이 담긴 책이다. 원본은 소실되어 전해지지 않으나, 여러 사료에 부분적으로 인용되고 있어 그 내용을 대충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저자는 “사람들에게 광둥(廣東)과 광시(廣西) 및 월남(越南) 북부 일대로부터 중원(中原) 왕조에 진공(進貢)한 진기한 식물과 그 제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남방초목상(南方草木狀) 정수일 『실크로드 사전』, 2013. 10. 31.

182) 이시진 『본초강목(本草綱目)』 권35 下,

時珍曰：海島有蘇方國，其地產此木，故名。今人省呼爲蘇木爾。按嵇含《南方草木狀》云 暹羅國人賤用如薪。《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과전DB》

183) 왕호고(王好古) 『탕액본초(湯液本草)』, 『탕액본초(湯液本草)』는 1289년 원(元)나라 왕호고가 지은 약물학에 관한 3권짜리 책이다. 『탕액본초(湯液本草)』 권下, 主破血, 產後血脹悶欲死者. 排膿止痛, 消癰腫瘀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과전DB》

또한 『동의보감』 탕액편에서는 소목의 특징에 대해서 성질이 평(平)하고 맛이 달며, 어혈을 푸는 것에 특별한 효능이 있고, 술에 삶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약뿐만 아니라 염색할 때도 사용한다고 한다.¹⁸⁵⁾

3) 명반(明礬), 백반(白礬)

명반¹⁸⁶⁾을 구운 것을 백반이라고 하는데 모직물이나 비단을 염색하는 것에 꼭 필요한 매염제이고, 특히 홍색 계통의 염색에 큰 효과가 있다. 매염은 매염제에 따라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고, 매염제를 사용함으로써 진하고 화려한 색을 얻을 수 있으며, 견뢰도를 높여 탈색을 방지한다. 소목의 경우 그 자체로 붉은색으로 염색되지만 매염이 안 될 때 견뢰도가 약해 탈색이 잘 된다. 다홍색(多紅色)의 경우에는 아랑오피를 달인 물에 백반을 넣고, 뜨거울 때 황색으로 염색한 후에 다시 홍화즙에 백반을 넣고 물을 들인다.¹⁸⁷⁾ 명반이나

184) 허준 『동의보감(東醫寶鑑)』 雜病篇 권10, 산후의 혈훈(출산 후 피를 많이 흘려 생긴 어지럼증상)이나 오로(분만 후에 자궁에서 나오는 분비물)가 나오지 않아 아프고 답답하여 죽을 것 같은 것을 치료한다. 소목 1냥을 썰어 술과 물로 달여 먹는다. 治產後血暈, 及惡露不下, 痛悶欲死. 蘇木一兩剉, 酒水煎服.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교전DB》

185) 허준 『동의보감(東醫寶鑑)』 湯液篇 권3, 성질이 평(平)하고 차다고도 한다. 맛은 달고 짜며 독이 없다. 부인의 혈기통(기혈이 허하여 아픈 증상)으로 명치가 아픈 것, 산후에 어혈로 붓고 답답하면서 죽을 것 같은 것, 여자가 피를 많이 흘려 이를 악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치료 한다. 웅중(몸에 난 작은 종기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증세로 가려움증이나 따가운 증세)과 넘어지거나 다쳐서 생긴 어혈을 풀어주고 고름을 빼내며, 통증을 멎게 하고 어혈을 잘 깨뜨린다. 소목(蘇木)이라고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염색할 때 쓴다. 술에 삶아 껍질과 마디를 제거하고 쓴다.

性平一云寒, 味甘鹹, 無毒. 治婦人血氣心腹痛, 及產後血脹悶欲死, 女子血噤失音. 消癰腫, 撲損瘀血, 排膿止痛, 能破血. 一名蘇木, 今人用染色者. 酒煮, 去皮節用.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교전DB》

186) 명반(明礬)은 황산알루미늄과 황산칼륨과의 복염(複鹽). 무색투명의 결정으로 매염제·제지(製紙)에 쓰이며, 모직물이나 실크 염색에는 꼭 필요한 물질이다. 백반(白礬)이라고도 한다. 백반(白礬)은 명반(明礬)을 구워서 만든 덩어리. 무색투명의 결정인 명반은 황산알루미늄과 황산칼륨과의 복염(複鹽)으로, 매염제·제지(製紙)에 쓰인다. 특히 모직물이나 실크 염색에는 꼭 필요한 물질인데, 백반(白礬)은 명반보다 그 효과가 크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시대 대일외교 용어사전》

187) 김지희 「한국 천연염색 종류 및 재배지와 전통 천연염색 방법」, 『한복문화』 4, 한복문화학회, 2001, 12, pp110~111.

백반은 알루미늄 매염제로 전반적으로 색상을 밝게 해주며 염료와 착화합물을 형성해 견뢰도를 증진시킨다.¹⁸⁸⁾

한지(韓紙)를 붉게 물들여 사용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것이 홍패(紅牌)인데 과거 급제자에게 발급하는 합격증서로 사용되었다. 생원(生員)·진사(進士試)의 합격자는 하품(下品)의 백패(白牌)를 사용한 반면에 문과(文科) 무과(武科)의 합격자는 상품(上品)인 홍패(紅牌)를 사용하였다. 붉은색 안료 염색의 경우에는 아교와 명반의 비율을 7:3으로 아교포수를 실시하고, 붉은색 염료염색은 염색액에 준비된 종이를 담근 후 명반으로 건조한다. 건조가 끝나면 0.1%의 명반을 발라 색을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¹⁸⁹⁾

『본초강목』에 의하면 『해약본초(海藥本草)』¹⁹⁰⁾에 백반은 맛은 시고 뚝으며, 성질은 따뜻하고, 독이 없다. 적백누하(赤白漏下)나 음식창(陰蝕瘡), 설사와 이질, 창과 개선을 치료하고, 온갖 벌레와 뱀의 독을 풀어 준다. 눈에 찢줄이 서고 갑자기 붓거나 이가 아픈 것을 제거하는데, 불에 제련한 것이 좋다고 한다.¹⁹¹⁾

『동의보감』 탕액편과 외형편에 따르면 백반은 희고 광택이 있는 것이 좋다. 곱게 가루 내어 질그릇에 넣고 한나절 동안 불에 달구어 분과 같이 하얗게 된 것을 고반(枯礬)이라고 한다. 온갖 창(瘡)을 치료하고 나쁜 것을 몰아내며 상처를 아물게 하는 묘한 약이다. 담을 삭일 때는 생것을 쓴다. 상처를 치료하는데 좋고, 특히 고름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다. 입안이 헐었을 때에도 뜨거운 물에 백반을 조금 넣어서 입을 행구면 좋다고 한다.¹⁹²⁾

188) 김혜인, 박수민 「우리나라 전통염색의 특성 및 발전과정」, 『한국지역사회생활과 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2, 10, P14.

189) 정국진 「조선시대 紅牌紙의 제작에 관한 연구」, 『장서각』 26, 2011, pp207~209.

190) 이순(李珣) 『해약본초(海藥本草)』, 교류의 문헌적 증거로서의 학문 연구서(약제). 중국 오대(五代) 때(907~959) 페르시아인의 후예인 이순(李珣)이 저술한 이 책은 63종의 해산물(海産物) 약방을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이 해물들은 페르시아와 아랍·로마·인도·베트남 등지에서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들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해약본초 [海藥本草] 정수일 『실크로드 사전』, 2013. 10. 31.

191) 이시진 『본초강목(本草綱目)』 권11, 酸·澀, 溫, 無毒. 赤白漏下陰蝕, 泄痢瘡疥, 解一切毒蛇蟲等, 去目赤暴腫齒痛, 火煉之良.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과전DB》
적백누하(赤白漏下-성숙한 여자의 생식기로부터 병적으로 빛이 벌건 피 같은 분비물이 흐르는 데 거기에 흰 이슬이 섞여 나오는 병), 음식창(陰蝕瘡-음부(陰部)에 생기는 부스럼), 창(온갖 피부병), 개선(음)

<표9> 조선과 일본·유구 간 명반, 백반 교역

시기	품목	수량 (근)	진상인
세종 3년 6월 10일 신축 2번째 기사	명반	10	구주 총관(九州總管) 원의준(源義俊)
세종 3년 11월 6일 을축 6번째 기사	명반	200	전 구주 총관(九州總管) 원도진(源道鎭)
세종 5년 1월 1일 계미 3번째 기사	명반	400	구주 총관(九州總管) 원의준(源義俊)
세종 6년 11월 23일 갑오 2번째 기사	명반	500	석성 관사(石城管事) 평만경(平滿景)
태종 1년 9월 29일 을묘 1번째 기사	백반	30	박다(博多)의 자운주지(慈雲住持) 천진(天眞)
세종즉위년 9월 18일 을축 3번째 기사	백반	30	일기 만호(一岐萬戶) 도영(道永)
세종즉위년 12월 29일 갑진 6번째 기사	백반	100	축전주 태수(筑前州太守) 장친가(藏親家)
세종 1년 2월 29일 갑진 3번째 기사	백반	68	대마도 인위 군주(仁位郡主) 종만무(宗滿茂)
세종 2년 12월 2일 병신 2번째 기사	백반	150	일본방장풍삼주도호(防長豐三州 都護)이며, 대내전(大內殿) 가질 (家姪) 다다량만세(多多良滿世)
세종 8년 1월 21일 병진 4번째 기사	백반	?193	수온도로(愁溫都老)·등원너구(藤 原賴久)·원조신귀구(源朝臣貴久)

192) 허준 『동의보감(東醫寶鑑)』湯液篇 권3, 白色光明者佳. 細研, 入瓦罐中火煨半日, 色白如粉者, 名枯礬. 通治諸瘡, 去惡生肌之妙劑也. 惟化痰生用.

外形篇 권2, 신경(腎經)의 열이 귀로 치받아 올라 진액이 엉겨 진한 고름과 맑은 진물이 생긴 것이나, 목욕하다가 물이 귀로 들어가 막혀 고름이 된 것이나, 아프지는 않은데 낫지 않고 변하여 고름이 된 것을 치료한다. 백반(구운 것)·용골 각 3돈, 황단 2돈, 연지(마른 것) 1돈, 사향 약간. 이 약들을 가루 낸다. 고름을 닦아낸 후 약을 붙여넣는다. 입안이 험 것을 치료한다. 물을 뜨겁게 하여 반 사발에 백반 한 꼬집을 넣고 약간 식혀 따뜻할 때 입을 행군다. 여러 번 하면 낫는다. 생백반을 가루내어 붙여도 효과를 본다.

治腎經有熱, 上衝於耳, 使津液凝滯, 爲稠膿, 清汁, 亦有沐浴, 水入耳, 停滯爲膿, 但不疼, 若不差, 變成膿. (枯)白礬·龍骨 各三錢, 黃丹 二錢, 乾胭脂 一錢, 麝香 少許. 右爲末, 先去膿水, 次吹藥入. 治口瘡. 熱水半碗, 入白礬一撮, 待溫漱口, 數次愈. 生白礬爲末, 付之亦效.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교전DB》

태종 9년 9월 21일 경인 1번째 기사	백반	500	유구국(琉球國) 중산왕(中山王) 사소(思紹)
세종즉위년 8월 14일 신묘 3번째 기사	백반	500	유구(琉球) 국왕의 둘째아들 하통련(賀通連)
세종 13년 11월 9일 경오 1번째 기사	백반	100	유구국왕의 사신 하례구(夏禮久)와 부사 의보결제(宜普結制)

<표9>에서 볼 수 있듯이 명반의 경우 일본에서 수입된 수량이 1,110 근이고 백반의 경우는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 456 여 근, 유구에서 들어온 것이 1,100 근이다. 특이한 기록은 세종 2년에 함길도 갑산(甲山)에서 백반이 생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종 7년에 1년 300 근의 공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세종 24년에 지평 박추(朴嶠)가 단목(丹木)·백반(白礬)·호초(胡椒)는 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것인데 무역을 허락하면 명 조정에서 조공(朝貢)을 지울까 염려하는 상소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함길도 갑산에서 생산되는 백반의 수량은 지극히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⁹⁴⁾

4) 서각(犀角)

<표10> 조선과 일본 간의 서각 교역

시기	수량	진상인
세종 2년 11월 15일 기묘 3번째 기사	1개	대마주(對馬州)수호(守護)도도웅와(都都熊瓦)
세종 3년 4월 16일 무신 3번째 기사	2근	대마도도만호(都萬戶)좌위문대랑(左衛門大郎)
세종 3년 8월 3일 계사 5번째 기사	1쌍	대마도도만호(都萬戶)좌위문대랑(左衛門大郎)
세종 3년 8월 3일 계사 5번째 기사	1쌍	일기주태수(一岐州太守)원중(源重)
세종 3년 11월 6일 을축 6번째 기사	3본	전구주총관(九州總管)원도진(源道鎭)
세종 3년 1월 6일 을축 6번째 기사	2본	농주태수(濃州太守)평종수(平宗壽)
세종 5년 1월 1일 계미 3번째 기사	3개	구주총관(九州總管)원의준(源義俊)

193) 수량에 대한 기록이 없음

194)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8월 9일 을사 4번째 기사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4월 13일 임자 4번째 기사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7일 기사 1번째 기사

세종 5년 1월 1일 계미 3번째 기사	2본	구주총관(九州總管)원의준(源義俊)
세종 5년 1월 12일 갑오 4번째 기사	2본	일향(日向)·대우(大隅)·살마(薩摩)세주(州)의태수(太守)조신(朝臣)원구풍(源久豐)
세종 5년 1월 28일 경술 9번째 기사	2근	전구주총관(九州總管)원도진(源道鎭)
세종 5년 1월 28일 경술 9번째 기사	8본	구주태수(駿州太守)원성(源省)
세종 5년 1월 28일 경술 9번째 기사	1본	비주태수(肥州太守)원창청(源昌淸)
세종 5년 5월 25일 갑진4 번째 기사	1본	작주(作州)전(前)자사(刺史)평상가(平常嘉)
세종 5년 5월 25일 갑진 5번째 기사	3본	전구주총관(九州總管)원도진(源道鎭)
세종 5년 6월 21일 경오 6번째 기사	2개	축전주(筑前州)석성관부(石城官府)평만경(平滿景)
세종 5년 6월 26일 을해 3번째 기사	3개	대마주대관(對馬州代官)야마다로중구(野馬多老重久)
세종 5년 7월 11일 기축 3번째 기사	1본	구주총관(九州總管)원의준(源義俊)
세종 5년 9월 18일 병신 2번째 기사	2본	전구주총관(九州總管)원도진(源道鎭)
세종 5년 10월 15일 임술 3번째 기사	5본	일본구주(九州)다다량덕웅(多多良德雄)
세종 5년 10월 15일 임술 3번째 기사	2본	축전주관사(筑前州管事)평만경(平滿景)
세종 5년 10월 18일 을축 3번째 기사	3본	구주총관(九州總管)원의준(源義俊)
세종 5년 10월 18일 을축 3번째 기사	3근6냥 중	비주태수(肥州太守)원창청(源昌淸)
세종 5년 10월 25일 임신 6번째 기사	4본	구주총관(九州總管)원의준(源義俊)
세종 5년 10월 25일 임신 6번째 기사	2본	축전주(筑前州)석성관부(石城官府)평만경(平滿景)
세종 5년 10월 25일 임신 6번째 기사	5본	구주태수(駿州太守)원성(源省)
세종 5년 11월 17일 갑오 3번째 기사	2본	축전주(筑前州)석성관부(石城官府)평만경(平滿景)
세종 5년 11월 24일 신축 3번째 기사	3본	전구주총관(九州總管)원도진(源道鎭)
세종 5년 11월 24일 신축 3번째 기사	1본	축전주(筑前州)석성관부(石城官府)평만경(平滿景)
세종 5년 12월 27일 갑술 7번째 기사	2머리[頭]	규주가사사로이바친물품(대장경판청구)
세종 5년 12월 27일 갑술 7번째 기사	1머리[頭]	범령이사사로이바친물품(대장경판청구)
세종 6년 6월 16일 기미 5번째 기사	2본	구주총관(九州總管)원의준(源義俊)
세종 6년 8월 21일 계해 9번째 기사	3개	구주(九州)작주자사(作州刺史)평상가(平常嘉)
세종 6년 8월 21일 계해 11번째 기사	2개	축주자사(筑州刺史)등원만정(藤源滿貞)
세종 6년 10월 6일 정미 7번째 기사	1개	일기주수(一岐州守)조신(朝臣)원중(源重)
세종 6년 11월 23일 갑오 2번째 기사	4개[頭]	석성관사(石城管事)평만경(平滿景)
세종 7년 1월 6일 정축 4번째 기사	?	구주도원수(九州都元帥)원의준(源義俊)

세종 7년 7월 15일 임오 10번째 기사	?	축전주태재(筑前州太宰)종정징(宗貞澄)
세종 7년 11월 1일 병신 2번째 기사	?	전주주총관(九州摠管)원도진(源道鎭)
세종 7년 11월 14일 기유 7번째 기사	?	비주태수(肥州太守)원창청(源昌淸)
세종 8년 1월 4일 기해 4번째 기사	?	비주태수(肥州太守)원창청(源昌淸)
세종 8년 11월 1일 경인 5번째 기사	1개	축주(筑州)석성관사(石城管事)종금(宗金)
세종 9년 1월 13일 임인 8번째 기사	8개	대마도도만호(都萬戶)좌위문대랑(左衛門大郎)
세종 9년 1월 19일 무신 4번째 기사	1본	살마주(薩摩州)이집원우진(伊集院寓鎭) 등원너구(藤原賴久)
세종 10년 2월 2일 갑인 2번째 기사	?	축주부(筑州府)석성현(石城縣)등종금(藤宗金)

<표10>에서 보듯이 서각¹⁹⁵⁾의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가 일정하지 않다. 또 수량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정확한 수량을 알 수가 없다. 세종 2년부터 10년까지 진상의 횟수는 44회이지만 수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병하는 이 기간에 약 1000 여 본의 서각이 수입되었다고 추산한다. 또한 이는 조선의 수요가 많지 않고 단일 종류에 대한 생산물보다는 여러 품목을 진상하는 것이 무역의 이윤을 위해서는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서각 무역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진상물에 끼워서 교역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¹⁹⁶⁾

서각은 조선에서는 생산되지 않은 물건으로 조선 초기에는 일본을 통해서 수입되었고 명(明)에서는 조선에서 동불(銅佛)을 진상한 것을 황제가 기뻐하여 하사품으로 서각을 보내온 경우가 있었다.¹⁹⁷⁾ 태조 1년의 기록을 보면 예조에서 품계별 관복의 복식을 상정하며, 서각으로 만들 서대(犀帶)는 1품의 고위 관직에만 착용하도록 하였다.¹⁹⁸⁾ 훗날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의장

195) 무소, 즉 코뿔소의 뿔. 또는 활을 만드는데 쓰이는 궁각(弓角)의 하나. 서우각(犀牛角)이라고도 한다. 서각(犀角)은 결이 곱고, 누른빛이나 검은빛의 꽃무늬가 있다. 술잔이나 활을 만드는데 쓰이거나 끝 부분을 가루로 만들어 약재로 사용하기도 한다. 조선은 오래 전부터 각궁(角弓)이라 하여 코뿔소의 뿔이나 쇠뿔, 양뿔 등을 재료로 활을 만들었는데, 이 활은 주변국에서 상품(上品)으로 인정받았다. 《한국학 중앙연구원 조선시대 대일외교 용어사전》

196) 김병하『李朝前期에 있어서 對日南海物産貿易(하)』, 『경제학연구』, 1967, p113.

197)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2월 22일 정미 1번째 기사

198)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2월 12일 무오 2번째 기사

(儀章)의 대(帶) 부분에 서대를 1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법제화까지 하였다.¹⁹⁹⁾ 당시 관1품의 서대(犀帶)와 옥관자(玉貫子)로 신분의 등급과 위엄을 나타낸 것으로, 당시 문무 관리들의 품대(品帶)에 장식된 서각은 품계를 상징하는 역할을 하였다.²⁰⁰⁾



<그림3> 물소뿔로 만든 홍서대



<그림4> 서대 경기도박물관 소장

삼척시립박물관 소장 강원도 민속문화재 제2호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출처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본초강목』에 서각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혈병 및 경간[간질]과 광증, 두창 등의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²⁰¹⁾

『동의보감』 탕액편에 따르면 성질은 차고 맛은 쓰고 시고 짜며 달고 맵다고

都評議使司啓: “自明年元正, 始服朝制冠服。 許令禮曹詳定.” 禮曹啓: “一品, 紅袍犀帶.

199) 『경국대전(經國大典)』예전(禮典) 의장(儀章)

一品, 朝服, 犀。 祭服·公服·常服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경국대전》

200) 정진영 「조선시대 보패류의 사용과 금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7, p49.

201) 이시진 『본초강목(本草綱目)』 권 51上, 서각(犀角)은 코뿔소의 정령(精靈)이 모인 것으로 족양명경[경맥(經脈)이름으로 양명경에는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과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이 속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위경(胃經)을 말한다.]에 쓰는 약이다. 위(胃)는 수곡(水穀)의 바다로써, 음식과 약물을 만드시 가장 먼저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서각은 온갖 독을 풀어 줄 수 있다. 오장과 육부는 모두 위(胃)에서 기를 품부 받으므로, 풍열(風熱)의 사독(邪毒)은 만드시 먼저 위를 마르게 한다. 그러므로 서각은 여러 가지 혈병 및 경간과 광증, 두창 등의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

時珍曰: 犀角, 犀之精靈所聚, 足陽明藥也。 胃爲水穀之海, 飲食藥物必先受之, 故犀角能解一切諸毒。 五臟六腑, 皆稟氣於胃, 風邪熱毒, 必先乾之。 故犀角能療諸血, 及驚狂斑痘之證。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과전DB》

도 한다. 서각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간(肝)에 쌓인 독성을 풀어주고 눈을 밝게 해준다. 피부에 나는 종기나 혈거나 혈어서 부은 상처에 효과가 있다. 흰 것보다는 검은 것이 상품(上品)이고 약효를 얻기 위해서는 생으로 된 서각을 갈아서 사용해야하는데 빨의 끝이 좋다.²⁰²⁾

5) 유황(硫黃)

화약(火藥)은 많은 종류가 있으나 조선시대에는 흑색화약만 제조할 수 있었다. 흑색화약은 염초(焰硝), 숯, 유황²⁰³⁾의 비율을 75:15:10의 비율로 만들어진 다.²⁰⁴⁾ 이 세 가지 원료 중 가장 구하는 것이 힘든 것이 염초이다. 염초 제조의 기술은 고려 말 최무선이 염초자취법(焰硝煮取法)을 습득함²⁰⁵⁾으로써 여말

202) 허준 『동의보감(東醫寶鑑)』湯液篇 권1, 성질이 차고 약간 차다고도 한다. 맛은 쓰고 시고 짜며 달고 맵다고도 한다. 독이 없다. 독이 조금 있다고도 한다. 심신(心神)을 진정시키고 풍독을 흩는다. 사기와 귀신을 물리치고 악독한 기운에 맞은 것을 물리친다. 놀란 것을 멎게 하고 열독이 심에 들어간 것을 몰아낸다. 광언(狂言)·망어(妄語)를 치료한다. 간기(肝氣)를 누르고 눈을 밝게 한다. 산람장기 및 온갖 독을 풀어준다. 웅저와 창종(瘡腫)을 치료하여 고름을 녹인다. 약에 넣는 것에는 검은 것과 흰 것 2가지가 있는데 검은 것이 낫다. 그리고 빨의 끝이 더 좋다. 서각으로 만든 물건은 모두 삶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약으로는 쓸 수 없다. 오직 생것만 좋다. 서각은 심(心)을 서늘하게 하고 간(肝)을 누르는 약제인데, 그 성질이 내달리는 것을 좋아한다. 열독을 풀어서 어혈을 삭이고, 심(心)을 서늘하게 하여 양명경에 들어간다.

性寒一云微寒，味苦酸鹹一云甘辛，無毒一云小毒。鎮心神，散風毒，辟邪精鬼魅，中惡毒氣，止驚，退熱毒入心，狂言，妄語，鎮肝，明目，解山嵐瘴氣及百毒。治癰疽瘡腫，化膿作水。入藥有黑白二種，以黑者爲勝。其角尖又勝。凡犀見成物，皆被蒸煮，不堪入藥，惟生者爲佳。犀者，清心鎮肝之劑也。其性善走。解熱毒以化血，清心以入陽明經。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교전DB》

203) 광택이 있는 노란색 결정체의 비금속 원소. 화약의 원료가 됨. 유황(硫黃)은 맛과 냄새가 없고 자연 상태에서는 순수한 황, 또는 황화물이나 황산염의 형태로 존재한다. 한의학에서는 천연산 황을 용해하여 잡질(雜質)을 제거한 뒤에 약재로 사용한다. 황(黃), 석유황(石硫黃), 석류황(石流黃), 석류황(石留黃), 유(硫), 황요사(黃硃砂), 황아(黃芽), 석류적(石硫赤)이라고도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시대 대외외교 용어사전》

204) 김준수, 김지훈, 장미경 「천연물을 이용한 조선시대의 염초 제조공정에 관한 연구」, 『화약·발파(대한화약발파공학회지) 제33권 제2호』, 2015, 6, p2.

205) 최무선은 개인적인 노력을 더하여 원나라 염초 기술자 이원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고 접대하였으며, 그의 종을 통해 기술을 익혀 자신만의 기술로 습득해왔다. 원·명 교체기에 중국의 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틈이 있었기에 최무선은 이원을 통해 염초자취법을 개인의 비기(秘技)로 습득할 수 있었다. 또한 염초자취법을 익힘

선초 화약무기 발달에 큰 이바지를 하였다. 그렇다면 유황은 어떻게 구할 수 있었을까? 서공(徐兢)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따르면 “고려는 산이 깊어서 유황이 생산된다.”²⁰⁶⁾라고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유황은 굳이 수입을 하지 않아도 구하기가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서종박물고변(五洲書種博物考辨)』²⁰⁷⁾에서 우리나라 많은 곳에서 생산되지만 일본에서 생산되는 유황을 제일 품질이 좋다고 기술했다.²⁰⁸⁾ 또한 『본초강목』에서도 유황의 생산지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유구와 중국의 광남에서 유황이 산출 되지만 일본에서 나는 유황을 으뜸으로 삼았다.²⁰⁹⁾

으로써 중국에서 꼭 수입하지 않고도 화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유혜진 「고려말 조선 초 최무선(崔茂宣) 가(家)의 화기(火器) 제조 활동」,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20, p18.

206) 서공(徐兢), 조동원 역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권23, 풍속2, 土産編, 山深而産硫黃. 황소자리, 2005, p294.

207) 오주(五洲)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의 사상과 저술에서 발견되는 박학(博學)과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문 태도는 그의 조부 이덕무(李德懋, 1741~1793)에게 받은 가학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청나라의 실용문물과 선진기술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던 이덕무는 북학과를 중심으로 청나라 문화와 기술의 수용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오주서종박물고변』은 고변(考辨)이란 말을 뒤에 붙여두었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 각 사물의 가공법을 설명하고는 의심나는 점과 고찰의 항목을 단락의 말미에 붙여두어 객관적 상세함을 확보한다. 진보성 「『오주서종박물고변』 저술의 성격과 이규경의 박물관(博物觀)」, 『인문학논총』, 2017, pp128~131.

208) 이규경은 유황의 제법 외에 유황이 생산되는 곳과 유황의 용도도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성(金城)·수안·경주·경성(京城)과 과천의 관악산(冠岳山), 청풍(淸風)의 학암(鶴巖), 단양 북쪽의 황점곡(黃店谷) 등에서 산출되는데, 다 헤아려 기록할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당시에 유황의 생산지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황은 서양 각 처에서 나며 일본에서 나는 유황의 품질이 좋다고 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유황(硫黃))》

209) 이시진 『본초강목(本草綱目)』 권11, 《庚辛玉冊》云, 硫黃有二種. 石硫黃, 生南海琉球山中;土硫黃, 生於廣南. 以嚼之無聲者爲佳, 舶上倭硫黃亦佳.

이시진 『본초강목(本草綱目)』 권1 上, 『경신옥책(庚辛玉冊)』 - 명나라 선덕(宣德) 연간(1426~1435)에 영헌왕(寧獻王) 주권(朱權)이 최방의 『외단본초』, 토속진군의 『조화지남』, 독고도의 『단방경원』·『현원술보장론』·『청하자단대록』 등 제서에 수록된 금석초목(金石草木) 가운데 연단술(煉丹術-불로장생의 약으로 믿었던 단을 만드는 기술의 하나를 가리키는 도교용어)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을 뽑아 이 책을 만들었다. 금석부(金石部)·영묘부(靈苗部)·영식부(靈植部)·우모부(羽毛部)·인갑부(鱗甲部)·음찬부(飮饌部)·정기부(鼎器部)로 분류하였으며 모두 2권, 541품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과전DB》

『경신옥책(庚辛玉冊)』에서는 ‘유황은 두 가지가 있다. 석유황(石硫黃)은 남해 유구(琉球) 지역의 산 속에 있고, 토유황(土硫黃)은 광남(廣南)에서 난다. 쪼갬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좋고, 선박으로 들어온 왜유황(倭硫黃)도 좋다.’ 하였다.

<표11> 세종시기 일본과의 유황 교역²¹⁰⁾²¹¹⁾

시기	수량	진상횟수
세종 즉위년	300근	1 회
세종 1년	1,060근	1 회
세종 2년	5,500근	2 회
세종 3년	9,400근	8 회
세종 4년	1,000근	1 회
세종 5년	162,200근	47 회
세종 6년	1,000근	1 회
세종 7년	3,000근 이상	4 회
세종 8년	4,000근 이상	5 회
세종 9년	10,500 근	7 회
세종 10년	수량 기록 없음	1 회
세종 31년	250 근	1 회

<표11>을 보면 세종 5년에 유황의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는 세종 4년 이후의 동북면 일대의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관계가 있다. 세종 4년에 조선은 전국적으로 흉년이 발생함에 따라, 지금까지 야인들의 물건과 조선의 식량으로 했던 물물교환이 어렵게 된 것이다. 세종 5년에는 달단(韃靼)의 요동 침략으로 요동 지역에 살던 다수의 여진 세력이 두만강 유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소요를 일으켜 국경의 긴장감은 높아져만 갔다.²¹²⁾ 이에 조선 조정은 여진의 침략에 대비하고 불시에 일어날 수

210) 『세종실록』에는 유황(硫黃)또는 석유황(石硫黃)으로 2가지로 기록되어 있으나 같은 종류로 합산해서 표기하였다.

211) 유황 교역에 대해 수량 기록이 없는 것이 세종 7년 3회, 세종 8년 2회, 세종 10년 1회이다.

212) 조영철 「조선 초기 여진 관계의 변화와 동북면 지역 진출 과정」, 『역사학보』 233, 역사학회, 2017, 3, pp62~63.

있는 분쟁에 대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진에 대한 선제적 공격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위한 화약 제조에 필요한 유황을 상당량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동의보감』 탕액편과 잡병편에 따르면 유황의 성질은 아주 뜨겁고 맛은 시다. 나쁜 기운이나 냉기를 몸에서 빠지게 하는 것에 효과가 있고, 아프고 힘이 없을 때 양기를 다시 돋게 한다. 색깔은 누런색이고 맑고 깨끗한 것이 좋고, 손발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경우에도 사용한다.²¹³⁾

6) 상아(象牙)

<표12> 조선과 일본·유구 간의 상아 교역

일시	수량	진상인
태종 9년 9월 21일 경인 1번째 기사	2매	유구국(琉球國) 중산왕(中山王) 사소(思紹)
세종 3년 11월 6일 을축 6번째 기사	2본	전 구주총관(九州總管)원도진(源道鎭)
세종 5년 2월 5일 병진 5번째 기사	30근	전 구주총관(九州總管)원도진(源道鎭)
세종 5년 11월 24일 신축 3번째 기사	1본	전 구주총관(九州總管)원도진(源道鎭)
세종 6년 8월 21일 계해 9번째 기사	1개	구주(九州)의 작주 차사(作州刺史) 평상가(平常嘉)
세종 7년 9월 19일 을묘 1번째 기사	?	전 구주총관(九州總管)원도진(源道鎭)

213) 허준 『동의보감(東醫寶鑑)』 성질이 아주 뜨겁고 맛은 시며 독이 있다. 명치의 적취와 사기(邪氣), 냉기가 뭉친 것, 허리와 신(腎)의 오래된 냉증, 냉풍으로 감각이 없는 것, 다리가 차고 아프며 힘이 없는 것에 주로 쓴다. 근골을 튼튼히 하고, 양기를 돋우며, 머리가 벗겨지는 것과 악창, 음부의 감닉창을 없애고, 개선충을 죽인다. 껍질을 갓 깨고 나온 새끼 거위 같은 색깔을 띤 것이 진품이다. 곤륜황(崑崙黃)이라고도 한다. 색깔이 붉은 것은 석정지(石亭脂)라고 한다. 누런색이고 맑고 깨끗한 것이 좋다. 쓸 때는 녹여서 참기름에 넣거나 동변에 7일 동안 담갔다가 곱게 갈아 수비해서 쓴다. 참새의 뇌수로 반죽하면 냄새가 나지 않는다. 상한음증으로 몸이 차고 맥이 미(微)하며, 손발은 차고 가슴이 답답한 경우를 치료한다. 유황 5돈을 가루내어 쑥 달인 물에 타서 먹고 바로 편안히 눕는다. 땀이 나오면서 낫는다.

湯液篇 권3, 性大熱, 味酸, 有毒. 主心腹積聚, 邪氣冷癖, 腰腎久冷, 冷風頑痺, 脚冷疼弱無力. 堅筋骨, 壯陽道, 除頭禿惡瘡, 下部蠱瘡, 殺疥癬蟲. 以色如鵝子初出殼者, 爲眞, 謂之崑崙黃. 其赤色者, 名石亭脂. 色黃瑩淨者佳. 凡使, 熔化入麻油中, 或入童便中浸七日, 細研水飛用. 以雀腦髓拌之則不臭. / 治傷寒陰證, 身冷, 脉微, 手足厥而躁. 硫黃 五錢, 爲末, 艾湯調服, 卽時安臥. 汗出而愈.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과전DB》

세종 7년 11월 1일 병신 2번째 기사	?	진 구주총관(九州總管)원도진(源道鎭)
세종 8년 12월 14일 계유 8번째 기사	1개	진 구주총관(九州總管)원도진(源道鎭)
세종 31년 2월 25일 병자 3번째 기사	11근	살마주(薩摩州) 대우 태수(大隅太守) 등원 희구(藤原熙久)



<그림5> 김종직이 사용했다는 상아홀
고령 대가야박물관 소장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09호)
출처 : 향토문화전자대전



<그림6> 채제공 금관조복 상아홀과 서대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보물 제1477-2호)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상아²¹⁴⁾는 코끼리의 어금니로 예로부터 장식품과 한약재로 널리 이용되어왔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 수입된 수량을 보면 매우 적다. 그 희귀성으로 상아는 홀(笏), 표신(標信)²¹⁵⁾, 통신부(通信符), 호패(號牌) 등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료

214) 코끼리의 어금니. 한 쌍으로 되어 뿔의 구실을 함. 위턱에 나서 입 밖으로 길게 뻗어 있다. 맑고 연한 노란색이며 단단해서 갈면 갈수록 윤이 난다. 장식용, 또는 악기, 도장, 물부리 따위의 공예품을 만드는 데 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시대 대일외교 용어사전》

215) 조선시대 궁중에서 급변을 전할 때나 궐문을 드나들 때 표로 지냈던 신분증이다.

였다.²¹⁶⁾ 태종 13년 호패법을 정할 때 2품 이상은 상아를 쓰나 녹각(鹿角)으로 대용(代用)할 수 있고, 껍에 들어갈 때에만 사용하도록 하였다.²¹⁷⁾ 태종 16년 조관의 관복 제도를 예조에서 상정할 때 4품 이상은 상아로 만든 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²¹⁸⁾ 이 제도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의장(儀章)의 홀(笏) 부분에 법제화 되었다.

특이한 기록은 세종 즉위년에 세종이 상의원에 명을 하여 상아원패(象牙圓牌) 12개와 오매패(烏梅牌) 30개를 더 만들도록 하였는데,²¹⁹⁾ 그 이유는 선소패(宣召牌)를 상아원패나 오매패로 만드는 경우에 소재 자체가 희귀하여 모조품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었다.²²⁰⁾ 그 선소패를 보고 상왕 태종이 그 용도를 병조참판 강상인(姜尙仁)에게 물었는데, 그 용도가 신하를 부르는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답을 했다. 이에 상왕은 그 상아패와 오매패를 돌려주며 여기서는 필요 없는 것이라 말하며 돌려주라며 세종의 마음을 시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²²¹⁾ 선소패는 임금이 특별한 경우에 신하를 부르는 신표(信標)로써 임금의 권위를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태종이 비록 세종에게 선위하였지만 국방에 관련된 업무와 국가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어놓지 않았다. 세종이 즉위하고 얼마 되지 않아 선소패를 제작하게 했다는 것에 태종의 입장에서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었을 것이다.

『동의보감』 탕액편과 잡병편에 의하면 상아는 성질이 평하고 차다고 한다. 살에 쇠나 대나무, 화살촉이나 침 같은 것이 박혀 나오지 않을 때 상아를 가루 내어 물에 개어 상처에 바르면 바로 나온다고 한다. 상아홀이나 상아로 만든 빗이 좋은데, 오래된 상아로 만들 것일수록 더 좋다고 한다.²²²⁾ 그러나 『진

예종 1년에 상아로 표신을 만든 사례가 있다. 예종실록 5권, 예종 1년 5월 7일 경인 5번째기사

216) 김병하「李朝前期에 있어서 對日南海物産貿易(하)」『경제학연구』, 1967, p110.

217)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1일 정축 4번째 기사

二品以上用象牙, 代用鹿角, 唯於詣闕用之.

218)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3월 30일 임술 2번째 기사

219)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8월 24일 신축 4번째 기사

上命尙衣院, 加造象牙圓牌十二、烏梅牌三十.

220) 이근우, 공미희 『세종실록 속의 대마도·대마도 일본기사 2』, 소명출판, 2019, p25.

221)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8월 25일 임인 3번째 기사

222) 허준 『동의보감(東醫寶鑑)』 성질이 평(平)하고 차다고도 한다. 독이 없다. 온갖 쇠

랍풍토기(眞臘風土記)』에서는 "상아는 산 코끼리를 죽여서 채취한 것이 상품이고, 저절로 죽은 것이 그다음이고, 산속에서 갈아서 오래된 것이 가장 떨어진다. 1년에 한 번씩 상아를 간다고 하는데, 아니다."라고 하였다.²²³⁾

IV. 맺음말

고려 말 조선 초기 동아시아는 격변의 장이었다. 중국 대륙에서는 원의 쇠퇴로 인해 한족(漢族) 농민의 반란이 나라 곳곳에서 일어났다. 그 중 홍건적(紅巾賊)은 고려를 침공해 개경(開京)을 함락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북조와 남조가 대립하는 남북조 시대가 전개되고 있었다. 남북조의 대립은 왜구가 빈번하게 고려로 침입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은 고려 왕조의 국가 지배력은 약하게 만들었고,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는데 공을 세운 신흥 무인세력들은 국가의 간섭 없이 각자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주원장에 의해 명이 건국되었고, 원은 북으로 쫓겨났다. 그렇다고 명의 영향력이 고려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려 조정에서는 기존 친원파를 견제할 수 있는 친명파가 세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친명파는 신흥 무력세력 중 바깥의 적을 토벌하는데 수

나 대나무 같은 것이 살에 박혀 나오지 않는 데 주로 쓴다. 성질이 평(平)하고 차다고도 한다. 독이 없다. 온갖 쇠나 대나무 같은 것이 살에 박혀 나오지 않는 데 주로 쓴다. 湯液篇 권1, 性平一云寒, 無毒. 主諸鐵及竹木刺入肉不出. 笏及梳, 作屑用之. / 雜病篇 권9, 主箭鏃, 及鍼入肉不出. 爲末和水, 付瘡上卽出. 舊牙梳尤佳.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과전DB》

223) 이시진 『본초강목(本草綱目)』 권51 上, 『眞臘風土記』云: 象牙, 殺取者上也, 自死者次之, 蛻於山中多年者下矣. 或謂一歲一換牙者, 非也.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과전DB》 『진랍풍토기(眞臘風土記)』는 중국, 원나라의 주달관이 저작한 13세기 말의 캄보디아 왕도(王都) 견문기. 주달관이 1296~1297년 원나라의 사절에 수행해서 진랍국(캄보디아) 수도 앙코르를 방문하고 귀국 후에 저작한 책으로, 수도의 성곽과 궁실에 관해 기술했으며 오늘날의 앙코르 톰의 유구와 부합되는 것이 많다. [네이버 지식백과] 진랍풍토기 [眞臘風土記, Zhenla-fengtuj] 미술대사전(용어편), 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1998.

많은 공훈을 세운 이성계와 뜻을 같이 하였고, 위화도 회군으로 실질적인 고려의 실력자가 된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며 1392년 선위의 형식으로 조선을 세웠다.

조선은 세계관을 화이관에 두고 스스로를 소중화(小中華)로 여겨 주변국가인 일본 및 여진, 유구 등을 이적으로 간주하였다. 이른바 소중화의식이다. 조선은 교린을 적례교린과 기미교린으로 구분하고 명나라의 책봉을 받은 일본 막부나 유구의 경우는 대등한 관계로 보고 적례적 교린관계를 설정하였지만, 일본의 지방 세력들이나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명의 책봉체계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미적 교린관계로 설정하였다.

조선은 초기 주변 국가들과 무역을 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물품의 교역이 아니었다. 조선이 채택한 교린 정책을 떠나가는 데에 좋은 수단이 무역이었다. 이웃 국가들과 무역을 통해서 변방의 안정을 꾀하고 동시에 조선의 문명국임을 과시하려 한 것이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었다고 왜구의 침범이 근절되지는 못하였다. 태조 이성계가 왜구 토벌의 전문가인 만큼 해안 방비를 강화하고 군사력을 키우기는 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왜구 근절의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본의 본주(本州)와 규슈(九州), 여러 섬들에 사신을 보내어 왜구의 대책을 논의하는 등의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였고, 조선 초 왜구의 침입의 원인이 왜인들의 경제적 궁핍이 크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무역을 허락함으로써 왜인들에게 왜구가 아닌 통교자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왜인들에게 무역을 허락하였지만 그들에 대한 통제는 게을리 하지 않았다. 언제라도 왜적으로 돌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조선 조정은 무역을 할 수 있는 포소를 제한하고, 조선으로 내조하는 상인들에게서 도서가 찍힌 서계를 지참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후에는 교역 통로를 단일화시키는 방법으로 대마도주에게 문인을 주어 내조 왜인을 보증하였고, 조선으로 들어오는 왜인은 문인이 있는 통행증을 조선 관리에게 보여주어야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교역을 허락하지 않음은 물론 왜적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유구의 경우에는 세 개의 국가가 나뉘어져 있던 삼산(三山)시대가 끝나고 통일 국가를 이룬 것이 1429년이다. 때마침 명나라는 해금정책을 실시하게 되고

송(宋)·원(元) 시대의 왕성했던 중국의 해상무역 세력들은 쇠퇴하게 되었다. 이 기회에 유구는 조공의 방식으로 명과 무역을 하게 되는데, 특히 동남아시아의 물품을 명으로 교역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다. 이뿐만 아니라 조선과 일본에도 서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물품을 연결하여 주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왜구의 발호는 그치지 않고 있었다. 유구의 상인들은 조선이나 일본에 무역을 하는 경우에 왜구에게 습격을 받아 물품을 약탈당하고 인명의 손실을 입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유구는 일본의 상인들을 중간자로 하는 중계무역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하카타나 사쓰마주 상인들은 직접 유구로 와서 자신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들이기도 하고 모자란 것들은 유구국에 물건의 출산지로부터 구입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구는 일본의 상인들을 사신으로 조선에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일본의 상인들은 실제 유구의 사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신인 것처럼 위장하여 조선에 교역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일본 상인의 입장에서서는 상인의 지위보다 사신의 지위로 교역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 조정에서는 거짓 사신에 대하여 의심을 하거나 종종 교역을 거절한 경우는 있지만, 대체로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교역 거절로 인해 위사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꺼려한 면도 있었지만, 조선 조정이 인식한 것으로 보여 일본의 상인들이 다시 왜구로 돌아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섬라꼭국이나 조와국과의 무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기미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후하게 대접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조선 조정은 새로 개창된 국가에 대한 외국의 사절단을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두었고, 또한 동남아시아의 진귀한 물품에 대한 호승심과 교역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도 고려했을 것이다.

본고에 연구된 10가지의 수입품을 보면 수우각을 제외하고는 약용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이다. 고려시대에 자주적인 의학서인 『제중입효방(濟衆立效方)』과 『향약구급방(鄉藥救急方)』이 있었고, 조선 태조 때 『향양제생집성방(鄉藥濟生集成方)』, 세종 때에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이 간행되기도 하였다. 이는 수입 약재에 대한 수요가 많은 반면에 공급은 원활하지 못했고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약재를 제때에 구하는 것이 어려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서는 치료를 받지 못하여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수입 약재에

대한 육구는 버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약재의 쓰임 말고도 수우각은 조선 국방의 필수인 각궁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였고, 소목은 홍화를 대신하는 염료로서 각광을 받았다. 유황은 화약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될 물품이었다. 서각이나 상아는 관료의 품계를 구분지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왜구의 근절을 위한 회유책으로의 일본과의 무역, 교린의 대상으로 한 유구와 동남아시아의 무역은 조선에서도 쉽지 않은 무역이었다. 언제나 진상의 명목으로 교역을 하였기 때문에 조선 조정에서는 값을 후하게 주어야 했으므로 재정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고가인 경우라도 조선으로의 수입은 꾸준히 유지되었다. 조선 초기 일본과 유구에서 수입된 품목은 50여 가지가 넘는다. 이 중에 실제 조선 사회에서 필요한 물건도 있을 것이고 단순한 사치품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교린의 정책으로 쓰이지 않는 물건이라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매우 드물고, 있더라도 매우 간략하게 되어 있어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연구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교역품에 대한 더 폭 넓은 조사를 통하여 조선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동사강목(東史綱目)』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경국대전(經國大典)』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
『산가요록(山家要錄)』
『오주서종박물고변(五州書種博物考辨)』
『동의보감(東醫寶鑑)』
『본초강목(本草綱目)』
『명사(明史)』

2. 단행본

이근우, 공미희 『세종실록 속의 대마도·대마도 일본기사 1』, 소명출판, 2019.
이근우, 공미희 『세종실록 속의 대마도·대마도 일본기사 2』, 소명출판, 2019.
부경대 해양문화연구소 『한국해양사연구총서1 - 조선전기 해양개척과 대마도』, 국학자료원, 2007.
부경대 대마도 연구센터 『한국해양사연구총서3 - 부산과 대마도의 2천년』, 국학자료원, 2010.

부경대 대마도 연구센터 『한국해양사연구총서4 - 전란기의 대마도』, 국학자료원, 2013.

서궁 지음 조동원 외역 『역주선화봉사고려도경(譯註宣和奉使高麗圖經)』, 황소자리, 2005.

미야자키 마사카츠 지음, 이근우(역) 『해도의 세계사』, 어문학사, 2017.

전순의 『산가요록(山家要錄)』, 고농서국역총서8, 농촌중앙청, 2004.

민승기 『조선의 무기와 갑옷』, 가람기획, 2019.

프레드 차라 지음, 강경이(역) 『향신료의 지구사』, 휴머니스트, 2014.

윌리엄 번스타인 지음, 박홍경(역) 『무역의 세계사』, 라이팅하우스, 2019.

3. 논문

신명호 「조선초기 해양개척과 어장개방」, 『한국해양사연구총서1 - 조선전기 해양개척과 대마도』, 부경대 해양문화연구소, 국학자료원, 2007.

김보한 「중세 왜구의 경계 침탈로 본 한·일 관계」, 『한일관계사연구』 42, 한일관계사학회, 2012, 8.

김보한 「고려·조선의 對일본 외교와 왜구 - 13~15세기 금구(禁寇)외교와 그 성과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7, 한일관계사학회, 2014, 4.

최연주 「朝鮮과 琉球의 交流樣相과 고려대장경」, 『일본근대학연구』 45, 2014.

손승철 「朝·琉 交隣體制의 구조와 특성」, 『강원사학』 제13·14 합집, 1998.

김병하 「李朝前期에 있어서 對日南海物産貿易 (상)1965, (중)1966, (하)1967」, 『경제학연구』

정지연 「朝鮮前期 對日 私貿易 研究」, 『한일 관계사 연구』 24, 한일관계사학회, 2006, 4.

정지연 「조선전기 壹岐 지역의 조선 통교에 현황에 대한 연구」, 『한일 관계사 연구』 57, 한일관계사학회, 2017.

이현아 「조선전기 수우각궁과 수우각 확보 노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19.

왕자 「근세 동아시아 후추 무역」,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20.

심의섭 「朝鮮初 對琉球 經濟와 貿易에 관한 研究」 『명지대학교 개교 50 주년 기념 제 1 회 충승(오키나와) 국제학술회의 : 조선왕조와 유구왕조의 역사와 문화 재조명』, 1998.

- 허경진, 조영심 「조선인과 류큐(琉球)인의 소통 양상」, 『일어일문학』 54, 대한
일어일문학회, 2012, 5.
- 이지혜 「조선 전기(1392년~1638년) 對유구 관계의 변화와 인식」,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13.
- 진영일 「조선시대 제주와 오키나와 交流史」, 『인문학연구』 3, 1997.
- 이영 「경인년(1350)~병신년(1356)의 왜구와 규슈 정세」, 『한국중세사연구』
26, 2009,
- 이영 「고려 말, 조선 전기의 왜구와 대마도」, 『한국해양사연구총서3 - 부산과
대마도의 2천년, 부경대 대마도 연구센터』, 국학자료원, 2010.
- 주노종 「조선의 문인 文引 제도를 통한 대마도 통치사 고찰」, 『유라시아연구』
제15권 제1호, (사)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8, 3.
- 박평식 「朝鮮初期의 對外貿易政策」, 『한국사연구』 125, 2004.
- 박평식 「조선전기 상업사의 이해시각」, 『역사교육』 155, 역사교육연구회,
2020, 9.
- 한문중 「朝鮮前期 對馬島의 通交와 對日政策」, 『한일관계사연구』 3, 한일관계
사학회, 1995, 5.
- 한문중 「조선전기 한일관계와 1407년의 의미」, 『지역과 역사』 22, 2008.
- 한문중 「조선전기 왜관의 설치와 기능」, 『인문과학연구』 32, 강원대학교 인문
과학연구소, 2012, 3.
- 한문중 「조선전기 倭人統制策과 통교위반자의 처리」, 『일본사상』 7, 2004.
- 한문중 「朝鮮前期의 受圖書倭人」, 『한일관계사연구』 5, 한일관계사학회, 1996,
5.
- 하우봉 「조선 전기 부산과 대마도의 관계」, 『역사와 경계』 74, 부산경남사학
회, 2010, 3.
- 하우봉 「조선 전기의 부산과 대마도」, 『한국해양사연구총서3 - 부산과 대마
도의 2천년, 부경대 대마도 연구센터』, 국학자료원, 2010.
- 하우봉 「조선초기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
구단 국제학술회의』, 2012.
- 하우봉 「조선전기 대외관계에 나타난 自己認識과 他者認識」 『한국사연구 123
』, 한국사연구회, 2003.
- 이규철 「1419년 대마도 정벌의 의도와 성과」, 『한국해양사연구총서4 - 전란
기의 대마도, 부경대 대마도 연구센터』, 국학자료원, 2013.
- 이정수 「15·16세기의 對日貿易과 經濟變動」, 『역사와 세계』 22, 효원사학회,

- 1998, 9.
- 양수지 「朝鮮·琉球 關係 研究-朝鮮前期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3.
- 양수지 「琉球王國의 滅亡」, 『근대중국연구』 1, 중국근현대사학회, 2004, 4.
- 신윤길 「17세기 양 동인도회사의 향료·후추 생탈무역 연구」, 『서양사학연구 창간호』, 1998.
- 민덕기 「조선시대 교린의 이념과 국제 사회의 교린」, 『민족문화 21』, 한국고전번역원, 1998.
- 민덕기 「동아시아 해금정책의 변화와 해양 경계에서의 분쟁」, 『한일관계사연구』 39, 한일관계사학회, 2011.
- 윤유숙 「조선후기 조선·일본의 동남아시아 산물 교역」, 『한일관계사연구』 70, 한일관계사학회, 2020.
- 유혜진 「고려 말 조선 초 최무선(崔茂宣) 가(家)의 화기(火器) 제조 활동」,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20.
- 진보성 「『오주서종박물고변』 저술의 성격과 이규경의 박물관(博物觀)」, 『인문학논총』, 2017.
- 김지희 「한국 천연염색 종류 및 재배지와 전통 천연염색 방법」, 『한복문화』 4, 한복문화학회, 2001, 12.
- 김혜인, 박수민 「우리나라 전통염색의 특성 및 발전과정」,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2, 10.
- 정국진 「조선시대 紅牌紙의 재작에 관한 연구」, 『장서각』 26, 2011.
- 조영철 「조선 초기 여진 관계의 변화와 동북면 지역 진출 과정」, 『역사학보』 233, 역사학회, 2017, 3.
- 김준수, 김지훈, 장미경 「천연물을 이용한 조선시대의 염초 제조공정에 관한 연구」, 『화약·발파(대한화약발파공학회지)』 제33권 제2호, 2015, 6.
- 우홍 「명대(明代) 조공(朝貢) 체계를 통한 동아시아 무역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9.
- 정진영 「조선시대 보패류의 사용과 금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7.
- 유혜진 「고려말 조선초 최무선(崔茂宣) 가(家)의 화기(火器) 제조 활동」,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20.
- 정용화 「조선의 조공체제 인식과 활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7집 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6.

조흥국 「근대 이전 한국과 동남아시아간 접촉에 대한 역사적 고찰」, 『국제·지역연구 8권 1호』, 1999.

이준태 「중국의 전통적 해양인식과 海禁政策의 의미」, 『아태연구』 17,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10.

4. 기타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데이터베이스 (<https://db.itkc.or.kr/>)

한국학의학연구원 한의학고전데이터베이스 (<https://www.medicclassics.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시대대일외교용어사전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2-EBZ-2101>)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한국전통지식포털 (<http://www.koreantk.com>)

동북아 역사넷 (<http://contents.nahf.or.kr/>)

두산백과사전 (<https://www.doopedia.co.kr>)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The Doctrinal System and Southern Trade During the Early Joseon

Dong woo Kim

Department of Korean Culture, The Graduate School of Global and Policy Studi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learn about diplomatic awareness of southern countrie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the development of trade activities with Japan, Yugu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It is to understand how imported goods were used through trade with southern countrie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the social landscape of that time.

Before studying trades, if you look at the circumstances of the early Joseon Dynasty, Ming was established in the Chinese continent, and the Japanese archipelago was continuing the era of chao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In addition, small countries divided into three parts were unified into one country in the Yugu Islands.

Joseon's foreign policy was based on Sadae-Gyorin, Joseon did Sadae(flunkyism) about Ming, other countries adopted Gyorin policy(good neighbor policy).

However, there were two Gyoirin doctrines: Jeokrye Gyoirin doctrines, which are perceived as equal relations, and Kimi Gyoirin doctrines, which prioritized Joseon and viewed neighboring countries as objects of

enlightenment.

In the case of southern countries, Japanese shogunate and yugu were recognized as the subject of Jeokrye Gyorin, and in the case of Japanese local clans, Tsushima,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as the subject of Kimi Gyorin. However, in the case of trade, the objective is not the same. In Japan, the purpose of trade was to eradicate Japanese pirates, and in the case of Yugu and Southeast Asia, neighbors from far away were treated generously by Gyorin.

One of the causes of the collapse of Goryeo and the founding of Joseon was the invasion of the Japanese. The Japanese invaders frequently invaded Goryeo, seriously damaging the finances of Goryeo government. As a result, the centralized power of Goryeo was weakened, and it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the growth of emerging unmanned forces that contributed to defeating external enemies. Among the emerging unmanned forces, Lee Seong-gye became a real power of Goryeo with 「the retreat of Yuihwado Island」, and established Joseon in accordance with the wishes of the emerging scholar official.

The establishment of Joseon did not reduce the invasion of Japanese pirates. In response, the Joseon government strengthened its defense capabilities and allowed the Japanese to trade as a conciliatory measure. It was an effort to induce the conversion of the Japanese into peaceful communists.

Yugu began broadcasting with geographical advantages, located halfway between Southeast and Northeast Asia. Trade with Ming could have benefited a lot, but trade with Joseon and Japan was followed by risks. This is because Japanese people often raven their wealth and lives on their way to Joseon or Japan. For this reason, Yugu switched to trade between Joseon and Japan through merchants of Satsuma and Hakata. At times, Hakata merchants were sent to Joseon as envoys to the state of Yugu, so many Japanese merchants exercised as if they were envoys, even though they were not real envoys, leading to favorable trade with Joseon.

In case of Southeast Asia, the Siam's Naigong during the reign of King Gongyang at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the Siam's Jangsado at the

reign of King Taejo of Joseon, and the Java's Jineonsang at the reign of King Taejong at the Joseon Dynasty were entered to the Korean peninsula. Joseon were treated generously as subjects of Goryeo, but trade with Joseon could not continue. Due to Ming's banning maritime trade policy, countries in Southeast Asia would have concentrated on trade with Ming due to stable tribute trade and many benefits. Trade with Joseon would have been skeptical of pushing ahead with the risk of Japanese pirates on a voyage to Joseon, and Joseon's government would not have been as desperate as China, Japan, or Jurchen for mutual ties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Ten of the 50 items imported from Southern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were studied, especially as medicinal herbs in oriental medicine was often used. As for the use of medicinal materials, basic data were used by Lee Si-jin's 『Bonchogangmok』 and Heo Jun's 『Donguibogam』. This is because Bonchogangmok (1596) and Donguibogam (1610) were published in the mid-Joseon Period, but they are books that collected oriental medicine. In addition to the use of medicinal herbs, the use of imported products was also summarized through historical and prior research.

According to the 10 imported items examined in this paper, all of them were used for medicinal purposes except for Suwoogak (Horn of water buffalo). During the Goryeo Dynasty and the early Joseon Dynasty, there were medicinal herbs produced on the Korean Peninsula, although books on them were also published. The popularity of imported drugs was greater than that produced on the Korean Peninsula. Imported drugs were in high demand, while supply was not smooth and so expensive that they were often not available on tim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ople, they often missed the timing and could not receive treatment, but it would not have been easy to abandon the desire for imported drugs that had been handed down from the past.

In addition, Suwoogak was an indispensable material for the creation of horn bow, which was essential for Joseon's national defense, and Somok (sappan wood) was spotlighted as a dye in place of red flowers.

Also, important items used as dyeing aids when dyeing Somok were alum and burnt alum. Sulfur was indispensable for the manufacture of gunpowder needed to strengthen defense capabilities. There is a record of calligraphy and ivory being used to distinguish the dignity of bureaucrats. More than 50 items were imported from Japan and Yugu in the early Joseon Dynasty. Some of them may have been necessities in the Joseon Dynasty and some of them were merely luxuries. In addition, there may have been cases in which they accepted items that were not needed as a policy of doctrine. However, records of how they were used are very rare and, if any, very brief, limited extensive and in-depth research. It should serve as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Joseon society through a wider survey of trade goods in the future.

